economy p/07
구자원 회장 상고 이유있다

metro®
메트로 2014년 2월 19일 수요일 제2917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초대형 실수만 안하면…"

'반바퀴 기적'… 쇼트트랙 해냈다

심석희 막판 뒷심 역전
女 3000m 계주 금메달

쇼트트랙 '차세대 여왕' 심석희(17·세화여고)가 펼친 '복수의 역주'가 꽉 막힌 금맥을 시원하게 뚫었다.

박승희(22·화성시청)-심석희-조해리(28·고양시청)-김아랑(19·전주제일고)으로 꾸려진 한국 대표팀은 18일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09초49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통의 메달밭'이었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부진의 늪'으로 변해버린 쇼트트랙에서 건진 값진 첫 금메달이었다. 500m 박승희의 동메달과 1500m 심석희의 은메달에 이은 쇼트트랙 세 번째 메달이다.

한국은 여자 3000m 계주에서 1994년 릴레함메르 올림픽부터 2006년 토리노 대회까지 4연패를 이루며 최강의 전력을 자랑해 왔다. 4년 전 밴쿠버 대회에서는 결승에서 1위로 레이스를 마치고도 경기 중 우리 선수가 중국 선수를 밀쳤다는 석연찮은 반칙 판정을 받아 중국에 금메달을 내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한국 대표팀은 소치의 금메달로 밴쿠버의 설움을 완벽히 씻어내며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의 위상을 확인했다. 그러나 앞서 남자 대표팀은 1000m·1500m·5000m 계주에서 노메달의 수모를 당했고, 박승희와 심석희는 500m와 1500m 결승에서 우승을 눈앞에 두고 놓치는 등 불운을 이어왔다.

이날 결승에서도 내내 2~3위를 오가며 불안한 레이스를 펼쳤다. 그러나 마지막 주자로 나선 한국 쇼트트랙의 차세대 여왕 심석희가 폭발적인 스퍼트로 역전 드라마를 완성하며 마침내 금빛 레이스를 끝냈다.

캐나다가 4분10초641로 은메달, 이탈리아가 4분14초014로 동메달을 가져갔다.

밴쿠버올림픽 우승국인 중국은 2위로 레이스를 마쳤지만 경기 도중 이탈리아 선수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반칙을 저질렀다는 판정을 받아 노메달에 그쳤다.

앞서 열린 여자 1000m 예선에 출전한 심석희·박승희·김아랑은 전원 조 1위로 준준결승에 진출해 22일 새벽 열리는 준준결승, 준결승, 결승에서도 금빛 기세를 몰아간다. <관련기사 22면>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장하구나! 태극낭자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박승희·조해리·김아랑·심석희·공상정(왼쪽부터)이 18일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뒤 태극기를 흔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또! 생사람 잡은 '샌드위치 패널'

'경주 리조트 참사' 건설업계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

"웬만한 하중 못버텨…중간에 기둥 몇개만 세웠어도"
전날엔 제2롯데월드 화재…돈보다 안전 의식 절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화재에 이어 경주 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설업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샌드위치 패널 문제점 뻔히 알아도 싸면 '장땡'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실내체육관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된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체육관은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PEB 공법'으로 지어졌다. 샌드위치 패널은 비용이 저렴한 반면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 1999년 6월 어린이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를 비롯해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 같은 해 12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바로 샌드위치 패널이다.

또 시공법도 사방에 H빔을 세우고 조립하는 간단한 방식이라 하중에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체육관의 경우에도 중앙 부분에 기둥 몇 개만 더 설치됐더라도 눈을 버틸 수 있는 하중이 훨씬 더 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빨리 짓자…안전관리는 '나 몰라라'

앞서 16일 자정 원인 모를 불이 난 제2롯데월드도 안전불감증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불길이 사건 발생 25분 만에 잡혔고 인명 피해도 없었지만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사상 사고가 반복된 탓에 안전 문제가 다시 증폭되고 있다.

제2롯데월드는 서울공항에 이착륙하는 군용기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착공 전부터 논란에 시달렸고, 지난해 2월에는 핵심 기둥 11곳에서 균열이 발견돼 부실 시공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주저앉은 체육관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이 180t에 달하는 습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종잇장처럼 찢겨 사고 당시 참혹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또 6월에는 공사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43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10월에는 기둥 거푸집 해체 작업을 벌이던 중 쇠파이프가 50m 아래로 추락해 지나가던 행인이 충격을 받고 치료를 받은 일도 있다.

◆정부·건설사·노동자 함께 안전불감증 반성해야

이처럼 이틀 사이 굵직한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떨쳐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건설사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비용 절감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면서도 '설마 문제가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처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인식부터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윤석민, 류현진을 배워라

기자 수첩

양 성 운
<연예스포츠부 기자>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입단을 확정 짓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첫 발을 내딛은 윤석민(28)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한 멘털'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내외 팬들의 쏟아지는 관심과 현지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한다.

우선 윤석민과 볼티모어의 계약만으로 화제가 된 건 사실이다. 윤석민의 합류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는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 류현진(27·LA 다저스)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나며 한국인 전성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화제몰이에 성공했지만 걱정도 앞선다. 바로 윤석민의 '멘털'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류현진의 경우 국내에서 흔들림 없는 투구를 펼치며 한화의 승리와 팀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 같은 모습은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민은 멘털이 약한 편이다. 과거 자신의 실투로 홍성흔(현 두산 베어스)에게 큰 부상을 입혔고, 그해 조성환의 머리를 맞추는 실투를 범했다. 당시 충격으로 윤석민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슬럼프를 겪으며 '롯데 울렁증'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런 증세를 보이다가는 울렁증을 넘어 멀미를 할 수도 있다. 메이저리그는 선수 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하다. 사소한 실투로 인해 격한 벤치클리어링이 벌어지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메이저리그 활동 보장, 선발 경쟁 보장'이라는 계약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윤석민이 빅리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 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모습 드러낸 '개인정보 유출' 공범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피의자인 KCB 전 직원 박 모씨와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 모씨의 신변보호를 위해 설치된 가림막을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

학생 연수시설 긴급 점검

박 대통령 "신입생 환영회 등 몰리는 시기… 사고원인 철저히 밝혀내야"

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한 데 대해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붕괴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희생자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상자 치료, 장례 보상 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번에 눈이 많이 온 동해안 지역의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위험 요인이 없는지 안전 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설 기준 준수, 제설 등 안전 조치, 대피 시스템 등 사고의 근원적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신학기를 앞두고 신입생 환영회 등 많은 행사가 예상이 된다. 학생 집단연수에 대한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부산과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각 부처는 현장의 안전 수칙들이 지금의 환경과 잘 부합이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면서 앞으로 이 수칙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교육하고 철저하게 감독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뉴스&뉴스

새누리,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 전면도입

●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 당헌당규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공계·여성 등 특정 계층을 배려하거나 전략 공천이 아닌 완전한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변호사 등록신청 보류

● '가카새끼 짬뽕'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렬(45)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보류됐다.

서울변회는 18일 이 전 부장판사가 제출한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했다며 25일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폭탄테러 피해자 15명 오늘부터 귀국

● 이집트 성지순례 중 폭탄테러를 당한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신도들이 19일부터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최규섭 부목사는 18일 "오늘 귀국할 예정이었던 15명의 현지 출국 수속처리가 완료됐지만 비행기 티켓을 구할 수 없어 출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케리 방한 후 달라진 한·일

아베 야스쿠니 참배 후 처음으로 국장급 접촉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중단됐던 한·일 외교가 당국 간 고위급 교류로 사실상 재개되면서 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 양국은 도쿄와 서울에서 국장급 이상의 외교 채널을 연쇄 가동했다. 17일 도쿄에서 이병기 주일대사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난 데 이어 18일 서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방한해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면담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양국 간 열린 첫 국장급 실무 접촉이다.

이런 연쇄 접촉의 핵심 논의 포인트는 양국 간 관계 개선 문제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해법이 집중 모색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도발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일본이 먼저 진정성 있는 조치로 이를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한·일 양국의 외교 채널 연쇄 가동은 4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예고한 뒤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이하라 국장은 한국 내 일본 공관회의 참석차 온 것"이라면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의 만남은 신임 인사 차원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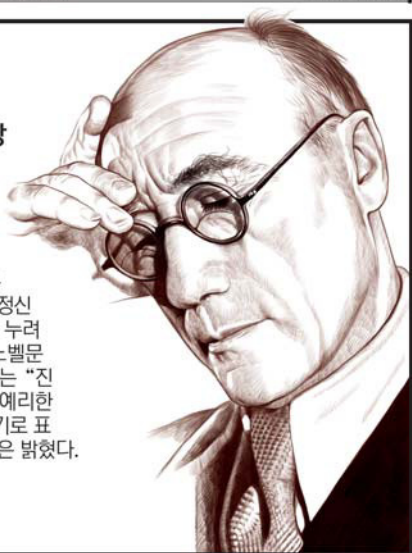
/김민준기자 mjkim@

"이산가족 상봉 이제 실감나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이틀 앞둔 18일 오후 이산가족 김명도 할아버지가 경기 용인 자택에서 부인 박현수 할머니와 함께 북한에 남은 식구들에게 전할 내복, 신발 등을 챙기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소설가 앙드레 지드 사망

소설 '좁은 문'의 작가 앙드레 지드가 1951년 2월 19일 파리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엄격한 청교도 교육을 받으며 자란 지드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기독교 사상을 거부하고 정신과 육체는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그의 수상 사유는 "진리를 향한 대담무쌍한 사랑과 예리한 심리학적 통찰을 놀라운 글쓰기로 표현해냈기 때문"이라고 한림원은 밝혔다.

오늘 우수…너무 다른 두 풍경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을 맞는다는 '우수'를 하루 앞둔 18일 거리에는 봄을 준비하는 몸짓이 한창이다. 서울 청계천에는 봄의 전령인 버들개지가 피어 있고(왼쪽) 폭설피해 지역인 강원 강릉에서는 주민들이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원격의료 합의한적 없다"

의사협회, 정부와 입법추진 발표했다 뒤집어…"강력한 반대 입장 변함없어"

의료발전협의회(이하 의발협)의 협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압박에 의해 협의 결과가 결정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 의발협에서 합의된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공감대를 거쳐 큰 틀에서 협의해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협의해나가기로 했으며 양측은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악수까지 했다. 또 의료제도 분야와 건강보험제도 분야 역시 협의를 통해 과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개선하자는 데 뜻이 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의협은 같은 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의협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환규 의협 회장은 "원격진료, 투자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의협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이것이 의협 집행부의 공식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논의해나가기로 한다' '구체화하기로 한다' '개선하기로 한다'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책임 있는 의지를 명시하는 것을 회피했다. 이는 교묘히 약속을 피해나갔던 지난 2000년 의정 합의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의 '협박성 압박'으로 의협 협상단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복지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의협 협상단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간의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논의를 중단하고 합의 내용도 무효화할 것이라며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단에 전권을 일임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야 협의 내용을 보고받았다. 협의 결과를 놓고 분명히 나와 임수흠 협상단장 간 인식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회장은 지난 17일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으며 의협은 예정대로 의발협 협의 결과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시작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독감 환자 2~3월 가장 많아

2명 중 1명은 20세 미만

늦겨울 독감 환자 2명 중 1명이 소아·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2009~2013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 결정 자료를 이용해 독감 진료 인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2012~2013년) 늦겨울과 초봄까지 독감이 유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신종플루가 가을철에 크게 유행했던 2009년을 제외하면 독감 진료 인원은 지금까지 1월과 2월에 가장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에는 1월보다 2~3월의 진료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독감 환자의 절반이 20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돼 소아·청소년의 독감 예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진료 인원의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10세 미만에서 34.1%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14.5%, 30대가 13.5%로 그 뒤를 이었다. /황재용기자

서울시, 9월부터 주요도로 7곳 '교통예보'

서울시는 18일 주요 도로의 도로 소통 전망을 미리 알려주는 '교통예보' 시범 서비스를 9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예보는 경부고속도로(한남~양재)와 강변북로 등 도시고속도로 7곳의 도로 소통을 일일, 주간 단위로 예측해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는 교통정보시스템인 토피스로 5년 이상 축적한 교통량 빅데이터를 요일·시간·날씨에 따라 분석하고 사고와 공사 등의 변수까지 반영해 도로 상황을 15분과 1시간 단위로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내년에는 교통예보 서비스를 세종대로와 종로 등 시내 주요 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예보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서울교통포털, 서울빠른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다혜기자

학자금 대출자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 곽병선(왼쪽 셋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신호(오른쪽 셋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가 18일 장학재단 회의실에서 '학자금 대출자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제공

학교급식 日수산물 차단

쇠고기 2등급 이상만 쓰고 잔류농약 검사 100%로 확대

앞으로 서울 시내 학교 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이 강화되고 가격은 낮아진다. 반찬의 경우 2등급 이상의 쇠고기와 무항생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 돼지고기가 제공된다.

이병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18일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때 안전성 검사에 그치지 않고 생산·재배 단계까지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9개 지자체와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행 5% 정도 이뤄지던 일반 농산물 정밀검사 비율을 100%로 확대해 잔류 농약을 철저하게 가려낼 계획이다.

또 납품업체별 공급으로 학교별로 품질이 제각각이었던 수산물도 10개 대표 품목은 원산지의 거점을 정해 일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일본산 수산물 공급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농산물의 경우 상위 30% 우수식재료를 공급하고, 소고기는 1·2등급을 제공하도록 공급업체와 협의를 마쳤다.

학교의 급식 납품업체 선정 방식에도 경쟁 방식을 도입해 가격을 낮추면서 품질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병호 사장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800명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친환경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을 구성해 모든 과정을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옥외광고물 관광명소 만든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처럼 한시 자유표시구역 운영

내년부터 서울 명동 등에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와 같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생긴다.

18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명동 같은 구역에 대해 시·도가 신청하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이 이뤄진다.

현재 대부분이 불법인 LED 전광판 등 디지털 광고물은 10월부터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전화번호밖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도 통신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제 경기 때나 연말연시에 한시적으로 조경용 광고물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운영된다. 또 추락 우려가 있는 고정 광고물은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정기자 jhj@

여성들 고리사채 지운뒤 일본에 원정 성매매 알선

한국 여성들에게 사채를 지우고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채업자 표모(47)씨와 현지 성매매업소 운영자 이모(43·여)씨, 이씨의 남편 박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표씨는 2010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돈을 빌리러 온 A씨 등 7명을 이씨가 운영하는 일본 도쿄 아라카와의 업소에 취업시킨 것을 비롯해 모두 1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씨는 A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이율 73%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고리를 뜯어 소득을 올렸다. /윤다혜기자

개학도 안 했는데 대입설명회 '빼곡' 18일 오후 서울 중계동 노원구민회관에서 열린 2015 대입 진학설명회를 찾은 예비 고3 학부모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유방암 예방 핑크리본 전시회

덕성여대 시각디자인학과 김승민 교수의 핑크리본 전시회가 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 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유방암 예방을 상징하는 핑크리본을 주제로 2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새'를 모티브로 기존의 '핑크리본' 심벌마크에 캐릭터를 접목한 작가의 시도가 돋보인다.

동덕여대 고용센터 전국 최대

동덕여대가 18일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에 전국 대학 중 최대 규모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덕여대는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각종 취업 프로그램과 함께 5명의 전문 컨설턴트 파견 지원을 받게 됐다. 또 최대 규모의 프로그램과 양질의 취업 진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황사·미세먼지 문자 서비스

서울시 영등포구가 주민들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주민들에게 황사나 미세먼지, 오존 등의 물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지속되는 경우에 관련 예·경보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특별한 장학금' 수혜자 선발

서울시 용산구가 구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특별한 장학금'의 주인공을 선발한다.

구는 초등학생 90명·중학생 80명·고등학생 83명 등 총 253명의 올해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 종류는 꿈나무, 예체능 특기자, 성적 우수, 지역 사회봉사 등이다.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시작

서울시 성동구는 중랑천변 좌안 살곶이다리부터 송정교 송정체육공원 간 약 1.9km 정도 단절된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를 17일 착공했다.

이번 공사로 중랑천 상류 측 의정부와 한강까지 자전거도로망이 완전히 구축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은 6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르헨 여권 발급받은 교황

또 '특권 내려놓기' 행보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라는 본명으로 갱신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 여권. /AP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조국 아르헨티나 국민 자격으로 외국 여행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황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보통 사람'으로 소탈한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17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권과 신분증 갱신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교황이 평범한 아르헨티나 국민 자격으로 외국 여행을 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플로렌시오 란다소 내무부 장관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의 여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여권으로 외국 여행을 하기 원한다"면서 "교황은 여권과 신분증 갱신 과정에서도 모든 특권을 사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황이 편의를 봐주지 말고 일반인과 똑같은 과정과 절차를 밟아 여권과 신분증을 갱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란다소 장관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 여권과 신분증을 곧 바티칸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와! 링컨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날'을 맞아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 도서관 겸 박물관'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으로 분장한 사람이 한 소녀 방문객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미국은 매년 2월 셋째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기념한다. /AP 연합뉴스

이탈리아 39세 렌치 총리 지명…"경제 살리겠다"

이탈리아 집권 민주당의 마테오 렌치(39·사진) 대표가 최연소 총리로 지명됐다.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렌치 대표를 총리로 지명하고 새 정부 구성을 위임했다.

렌치 지명자는 위임 직후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비효율적인 정치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달까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렌체 시장 출신인 렌치는 대중적 인기가 높다. 국민이 염증을 느끼는 중앙정치를 멀리하면서 지방 행정 경험을 쌓은 데다 외모도 준수해 젊은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이탈리아 정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젊은 피'로 불린다.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탈리아인의 54%가 그의 통치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미기자

아베 제동 거는 日자민당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관계 망쳐" 등 그간 침묵 벗고 비판 시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독주'에 제동이 걸리는 걸까.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집단자위권 관련 발언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내 파벌(누카가파)의 수장이자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전 재무장관(중의원 10선)은 전날 강연에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 관계가 더 이상해졌다"고 말했다.

또 13일 자민당 총무회에서 무라카미 세이치로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의 최종 책임자는 총리'라는 아베의 최근 발언과 관련, "선거에서 이기면 헌법을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자민당 내부에서는 총리에 대한 비판 의견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그의 거침없는 '우파 행보'에 우려를 표하는 지지자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연승,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발언과 태도는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을 때가 많다.

한편 일본을 방문한 에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중국을 이롭게 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17일 일미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야스쿠니 참배 이후 중국이 연일 대일 비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운석 추락 호수에 UFO 은폐"

metro Russia

"운석이 떨어진 호수에서 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신비의 물이 샘솟는다. 호수 밑바닥에 떨어진 미확인 비행물체(UFO)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 첼랴빈스크 지역 주민들이 운석이 떨어진 호수와 관련, 'UFO 추락설'을 펼쳐 화제다.

지난해 2월 15일 첼랴빈스크주 체바르쿨 호수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거대한 구멍이 생겼다. 러시아 당국은 해당 지역을 폐쇄했다. 이에 몇몇 지역 주민들과 사이비 학자들은 "운석이 떨어진 후 호수의 물에 치료 효능이 생겼고 호수 밑바닥에 UFO가 묻혀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마리나는 "호수에 신비로운 뭔가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신기하게도 운석이 떨어진 후 수돗물이 매우 깨끗해졌다. 그는 "지난 가을호수에서 운석을 인양한 후 수질이 다시 나빠졌다"고 덧붙였다.

첼랴빈스크 국립대학교 물리학부의 알렉산드르 두도로프 교수는 "운석이 귀중한 연구자료임에는 틀림없다"며 "운석에 특이 성분이 함유되거나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효능이 있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니콜라이 세레딘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외국작가 작품만 전시 불만 10억원짜리 화병 작품 박살

미국 화가가 중국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의 10억원짜리 화병 작품(사진)을 깨뜨렸다. 새로 생긴 지역미술관이 해외 작가의 작품만 전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서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경찰은 16일(현지시간) 지역 화가 막시모 카미네로(51)가 최근 개관한 페레즈미술관에서 아이웨이웨이의 화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작가가 2000년 전 중국 한대에 제작된 화병에 밝은 색을 입힌 작품 16개가 전시돼 있었다. 미술관 측은 깨진 화병의 가치가 100만 달러(약 10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카미네로는 "미술관이 해외 작가들의 작품만 전시하는 데 항의하려고 화병을 깼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판교·광교 전셋값 2년새 1억 넘게 상승

전세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최근 2년간 판교·광교 등 아파트 전셋값이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도 2년 만에 6000만~7000만원 상승,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1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구당 전셋값은 평균 2억866만원으로 2년 전의 1억8775만원보다 2091만원 뛰었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2억6371만원에서 2억9930만원으로 2년 사이 3459만원, 경기도는 1억5621만원에서 1억7142만원으로 1521만원 상승했다. 2기 신도시는 2억295만원에서 2억3586만원으로 3291만원 올랐다. /박선옥기자 pso9820@

market index <18일>

코스피 1946.91 (+0.55)

코스닥 525.42 (+3.42)

금리(국고채 3년) 2.86 (+0.01)

환율(원·달러) 1065.20 (+4.70)

파렴치한 기업범죄 '실형' 마땅

issue&view
검찰, 구자원 LIG회장 상고

대주주 '정보독점' 악용해 고객 속이고 사익추구
주주 피해 안입힌 김승연 한화 회장과 죄질 달라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검찰이 집행유예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한 반면, 구자원 LIG 회장 등 LIG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상식적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의 경우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주들의 피해가 없는 등 과거의 기업 범죄와 다른 반면, 구 회장 일가의 경우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채권단과 거래 당사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하는 등 상당히 악의적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 등 LIG그룹 총수 삼부자에 대해서는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법원 판결 당시 판결문을 보면 상당히 큰 차이점이 나타난다.

김승연 회장에 대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이유로 ▲피해 회복을 위해 1597억원을 공탁한 점 ▲그동안 기업을 이끌며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꼽았다.

반면 구자원 회장 일가의 경우 이와는 전혀 다르다. 구회장은 고령으로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만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이유다. 법원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악의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허위 재무제표 작성은 기업 투명성을 저하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업 범죄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사망선고에 버금가는 회생 신청을 계획하고도 대주주 일가의 담보주식 회수를 위해 회생 신청을 미루고 자금 조달을 계속했다"며 "이는 기업 내부 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가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속인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파렴치한 범행"이라고 비판했다.

뉴스&뉴스

생산자물가 16개월째 하락

●생산자물가가 1년4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에 견줘 0.3% 떨어졌다.

2012년 10월 0.5% 하락한 이후 16개월 연속 내림세다. 분야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1.9% 떨어졌다. 품목별로는 배추(-65.6%), 양파(-49.9%), 콩(-31.4%) 등의 생산자물가가 많이 내렸다. /김민지기자

한국 수출물량 증가율 3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물량 증가율이 주요 수출국 중 3위에 올랐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2013년 수출 평가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물량 증가율은 6%로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홍콩(6.6%), 중국(6.5%) 다음이었다. 수출액 증가율(지난해 11월 말 기준)은 1.7%로 영국(14.6%), 홍콩(9.8%), 중국(8.2%), 독일(2.9%), 이탈리아(2.6%), 미국(2.3%) 등에 이어 7위에 올랐다.

이 같은 실적은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컸다. 대기업 수출은 전년의 같은 기간 대비 0.5% 증가에 그친 반면에 중소·중견기업 수출은 4.3%나 증가했다. /이국명기자

현오석 부총리 경제 전망
"3.9% 이상 성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국 경제가 3.9%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를 초청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힘입어 최근 한국 경제도 경기 회복 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3.9%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인 만큼 경제 회복의 온기가 퍼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올해에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EU는 한국의 2번째 교역 파트너이자 한국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지역"이라고 언급한 뒤 "EU의 대한국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면접 보는 기술특전사들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술특전사 중소기업 잡페어를 찾은 기술부사관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청과 국방부가 함께 군 기술인력 200명의 중소기업 취업을 알선해 기업 현장의 기술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기임원 월보수 1억5530만원

100대 기업 평균의 최소 3배

지난해 삼성전자 등기임원 1명이 받는 고정 보수는 매월 최소 1억553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100대 기업 등기임원이 받는 고정급 형태의 월 보수액 5230만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이다. 또 100대 기업 중 등기임원 1인당 월평균 고정 보수액이 1억원을 넘는 기업은 7개사였다.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는 '2013년 100대 기업 등기임원 1인당 월평균 최소 고정 보수 분석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 100대 기업은 상장사 중 매출액 기준이며, 12월 결산법인에 한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국내 100대 기업 중 2013년 한 해 월평균 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삼성전자였다. 월평균 고정 보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삼성전자는 등기임원 1인당 최소 연간 18억6360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말 등에 지급되는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삼성전자 등기임원이 받는 실제 연간 총 보수액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현대차 등기임원 한 명의 월평균 고정 보수액이 높았다. 현대차는 삼성전자에 비해 불과 3.3% 적은 1억5020만원이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현대차 등기임원은 지난해 1명당 최소 18억240만원 이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월평균 고정 보수액이 높은 3~5위 기업은 현대제철(1억1670만원), 현대모비스(1억980만원), KT(1억700만원)로 파악됐다. CJ제일제당(1억480만원)과 한진해운(1억50만원)도 매월 1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연간 보수로 환산하면 현대제철 14억40만원, 현대모비스 13억1760만원, KT 12억8400만원, CJ제일제당 12억5760만원, 한진해운 12억600만 원이었다. /김태균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집국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유출 카드정보 6건 중 1건 '탈회고객'

카드 3사에서 대량으로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 중 1400만 건은 이미 카드사에서 탈퇴한 고객들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 3사에서 유출된 탈퇴 고객의 개인정보 건수는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가 각각 400만 건씩, 롯데카드가 600만 건이었다.

이는 전체 유출 건수인 8500만 건(사망자 등 제외, 카드 사 간 중복 포함) 가운데 16%에 이르는 규모다. 유출 정보 6건 중 1건은 탈퇴 회원의 정보인 셈이다.

김기준 의원은 "카드사들은 탈회한 고객의 자료를 분리해 저장, 관리하지 않다가 통째로 유출시켰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곧바로 이를 파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정부 당국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관 실태를 조사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차기 한은총재 '오리무중'

김중수 총재 임기 한달 남기고도 지명 안돼…10여명 하마평만 무성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누가 후임 총재로 임명될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바뀐 한은법…인사청문회 도입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총재부터는 개정된 한은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왔다. 때문에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후임 총재가 지명돼야 한다. 그러나 누가 차기 총재 물망에 오르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은 내부 분위기도 말 그대로 뒤숭숭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차기 총재직을 둘러싼 하마평만 무성하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한은 내부 출신과 학계, 관 출신 인사까지 10여 명이 넘는다.

학자 출신으로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조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활동해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 경제공부모임 멤버인 김인준 서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도 오르내리고 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역시 차기 총재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한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은 내부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 이에 반해 한은의 폐쇄적인 문화를 개선하는 쪽에 인선 기준을 둔다면 외부 출신 인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중앙은행 총재의 자질로 영어 능력 등을 먼저 꼽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중앙은행 총재가 돼야 한다면 외국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앙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잠재 성장률을 4%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라며 "차기 한국은행 총재도 통화 확장을 선호하는 비둘기파 인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차기 총재 취임을 앞둔 1분기 말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에이스생명-국민연금 '은퇴설계사 과정' MOU

에이스생명은 은퇴설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행복한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ARA·Ace Retirement Academy)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개설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행복한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ARA)'은 연간 60명의 은퇴설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매년 2월과 7월 연간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전체 교육과정의 핵심인 '정규과정 3단계' 중 국민연금공단과는 정규 교육과정의 중요한 단계인 노인생애 학습에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는 사전 학습, 정규 과정, 고객 대상 세미나·봉사활동의 총 3단계로 구성된다.

정규 과정은 노후 설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인생애 아카데미'와 요양 체험을 비롯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교육하는 '노후 생활 아카데미', 재무설계 프로세스 및 연금 상품을 연구하는 '행복한 은퇴생활 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꼬물대는 주꾸미, 시세보다 쌉니다" 18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역점에서 모델들이 2월 중순 서해 바다에서 첫 조업한 국내산 생(生)주꾸미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19일까지 제철 시세보다 저렴한 100g당 238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동양그룹 회생안'에 CP피해자 시큰둥

현금 변제율 40% 제안에 "50%로 올려달라" 요구

부실 기업어음(CP) 사태로 4만여명의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안긴 동양그룹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보상안을 놓고 회사와 피해자 모임 간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최근 법원에 동양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현금변제율 40%, 출자전환 비율 60%로 산정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1000만원을 투자했을 시 현금으로 400만원을 오는 2023년까지 분할로 돌려받고 나머지 600만원은 동양 보통주로 지급받는다.

다만 법원의 계획안 인가와 피해자 채권단과의 협의가 남아있어 정확한 배상 규모는 관계인 집회가 열리는 다음달 중순쯤 최종 결론에서 도출될 전망이다.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들의 모임인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는 회사 측보다 높은 현금변제율 50%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액을 주식으로 보상받는 출자전환의 경우 동양 계열 상장사의 주가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양을 포함해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은 상장폐지 사유인 주요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27일 이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만에 하나 상폐된다면 출자전환 보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한편 동양네트웍스의 경우 현금 변제율 65%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하고 나머지 35%는 출자전환한다고 공시했다. 동양시멘트는 원금과 이자 전액을 현금 변제할 예정이다.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는 총 2만7981명으로 이 중 99%가 개인투자자였다.

/김현정기자 hjkim1@

LS회장 "컬러있는 리더 돼라"

신임 임원 만찬서 당부

구자열 LS 회장이 17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그룹의 미래를 이끌 신임 임원 12명과 만찬을 갖고 "컬러가 분명한 리더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구 회장은 "임원은 일반 직원들과는 달라서 자신의 분야에 대한 최고의 실력과 분명한 '컬러'를 겸비해야 하고, 이것이 밝고 긍정적이어야 구성원이 일관된 비전을 가지고 따르게 된다"며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다양한 컬러가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조직에 활력이 생기는 등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특히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가 펴낸 '천년 벗과의 대화' 서적을 전달하며 "책에서 연암 박지원 선생의 '교우론'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 '벗'이란 수천년 흘러온 세상 속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으로 아주 소중한 존재이며, 이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느냐가 중요함을 알게 해줬다"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만 보며 달려왔을 텐데 이 책을 통해 가족과 벗, 주변 사람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의미를 새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it@

구자열(오른쪽) LS 회장이 17일 저녁 신임 임원 12명을 초대해 만찬을 갖고 구성원, 가족, 벗과 더욱 소통하라는 의미로 '천년 벗과의 대화' 서적을 선물하고 있다. /LS 제공

'단통법'은 논의서 일단 빼!

"여야 간 쟁점 있어…" 법안심사소위서 제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2월 임시국회 통과마저 불투명해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간 비공개 협의 끝에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논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미방위 한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놓고 여야 간 쟁점이 있어 안건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앞서 단말기 유통법은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제조사 장려금 규모 제출 조항이 수정되면서 갈등 구조가 다소 해소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보완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국회 통과에도 힘이 실리는 듯했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단말기 유통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 시 보조금 상한 기준, 과징금 기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자 대통령의 목소리도 소용없었다.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단말기 유통법이 이번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2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 보인다.

단말기 유통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21일까지는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 본회의는 27일 끝난다.

/이재영기자 ljy0403@

쏘나타LF '7단 DCT' 장착

3월 출시 앞두고 국산차 최초 자랑… 폭스바겐·아우디 DSG와 유사

오는 3월 출시될 현대차의 신형 쏘나타(LF)에 국내 최초로 7단 DCT가 장착된다.

18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신형 쏘나타는 2.0 CVVL 가솔린과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우선 장착되며 여기에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이 새롭게 조합된다.

지금까지 현대차는 중형급 승용차에 6단 수동변속기와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해왔으나 DCT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 라인업에서는 벨로스터가 DCT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는 6단 타입이며 현대 위아가 생산하고 있다. 신형 쏘나타는 여기서 더욱 진화한 7단 타입이고 현대 다이모스가 생산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말 그대로 클러치가 두 개 장착된 변속기다. 수동변속기는 운전자가 클러치를 붙이고 떼면서 변속을 진행하고, 자동변속기는 토크 컨버터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하나의 하우징 안에 클러치 두 개가 장착돼 각각 홀수단과 짝수단의 변속을 나눠 맡는다.

이 메커니즘의 장점은 변속이 빠른 데다 차체를 경량화할 수 있어 연비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수동변속기의 경우 운전자의 발에 변속 타이밍이 결정되지만,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변속기가 다음 기어 변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 거의 없고 빠르다. 현대차의 DCT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는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쓰는 DSG(Direct-Shift-Gearbox)가 가장 유명한데, 높은 효율성과 빠른 변속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현대차가 DCT 장착으로 노리는 효과도 이런 점이다.

DCT 생산을 담당하는 현대 다이모스는 올해 서산2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며, 여기에 7단 DCT 생산 라인을 마련한다. 서산2공장은 양산 시점까지 완벽한 품질을 갖추기 위해 단계적인 품질 확보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DCT 양산이 준비되는 대로 신형 쏘나타를 비롯해 준중형차와 소형차에도 장착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승용차 중에 DCT를 장착한 차는 현대 벨로스터 외에도 포드 포커스, 르노삼성 SM5가 있으며, 이 두 차는 독일 게트락의 DCT를 적용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보그워너(BorgWarner)가 개발한 DSG의 라이선스를 사들여 아우디와 람보르기니 등 다양한 계열사 제품에 적용 중이다. BMW는 독일 ZF와 공동 개발한 DCT를 M3 등 일부 모델에 쓰고 있고, 포르쉐는 PDK를 사용하고 있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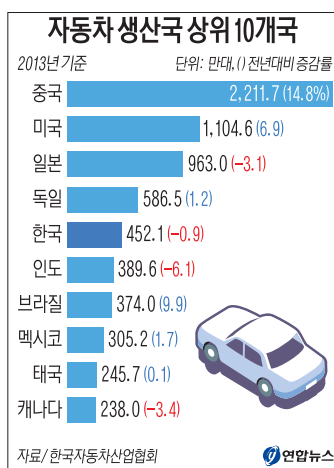
오는 3월 데뷔할 현대차의 신형 쏘나타.

한국차 생산 9년연속 5위

지난해 452만 대 기록 세계시장서 5.2% 차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해 세계 자동차 생산 자료(해외 생산은 현지 국가에 포함)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452만 대로 9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생산 비중의 5.2%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일부 대도시의 등록제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중서부 지역의 판매 증가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한 2212만 대(세계 생산 비중 25.3%)를 생산해 처음으로 2000만 대를 돌파했으며, 미국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6.9% 증가한 1105만 대로 4년 연속 증가해 글로벌 경기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해 2위를 유지했다.

일본은 엔저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3.1% 감소한 963만 대로 3위를 유지했으며, 독일은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586만 대로 4위를 유지했다. 이 밖에 인도가 6위, 브라질이 7위, 멕시코가 8위, 태국이 9위, 캐나다가 10위를 차지했다.

태국은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0.1% 증가한 246만 대를 생산해 캐나다를 제치고 9위에 올라섰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은 중국과 미국 시장의 판매 증가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8738만 대를 기록했다.

/임의택기자

삼성·애플 당황케 한 화웨이의 '희롱 광고'

중국 IT기업 화웨이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쌍두마차인 삼성과 애플의 심기를 건드리는 광고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가 내보낸 문제의 광고 속 남성은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 '시리'와 유사한 서비스를 구동한 뒤 "올해 MWC의 새로운 것을 알려달라"고 주문한다. 이에 '짝퉁' 시리는 브랜드를 노출하지 않은 채 기기를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슬림 디자인, 오래가는 배터리, 뛰어난 화질의 전면카메라, 최고의 재미를 주는 태블릿"이라며 극찬을 한다.

대답을 들은 남성은 "이 기기가 과일(Fruit)이니, 노래(Some Song)니"라고 묻자 단말기는 "화웨이"라고 답한다. 과일은 사과를 노래는 삼성을 희화화한 말이다.

/박성훈기자 zen@

요즘도 ‘카카오 게임’만 하니?

게임유통 플랫폼 ‘아프리카TV 게임센터’ BJ진행 등 차별화로 순항중

카카오의 게임 유통 플랫폼 ‘카카오 게임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유명한 아프리카TV의 ‘게임센터’(사진)가 ‘다윗’을 자처하며 ‘골리앗’ 카카오에 도전하고 있다.

이미 아프리카TV 게임센터로 유저를 만나고 있는 와이디온라인의 모바일 RPG ‘천만의 용병’ 등은 안드로이드 게임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프리카TV 게임센터는 카카오 게임하기와 차별화에 나섰다.

채널링이라는 유통 방식은 비슷하지만 카카오가 입점 게임을 나열하는 진열식 플랫폼이라면 아프리카TV는 퍼블리싱에 근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즉 카카오가 백화점이라면 아프리카TV는 영업, 마케팅 등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게임센터는 방송을 진행하는 주체 BJ(Broadcasting Jokey)를 중심으로 시청자들이 모여 게임 내에서 서로 돕고 그룹 경쟁을 하는 클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BJ가 게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게임을 먼저 접한 사람들의 플레이를 공유하는 등 자발적인 게임 알리기가 가능하다. 게임 내에 BJ 캐릭터, 목소리 삽입 등의 부가서비스도 곁들인다.

여기에 게임 이용자와 방송 제작자·시청자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상 아이템 ‘초콜릿’을 도입했다.

게임을 설치하거나 플레이 또는 아이템을 구매할 때마다 ‘초콜릿’을 제공하고 유저는 이 아이템을 플랫폼에서 퀵뷰, 슈퍼 채팅 등 유료 아이템으로 교환하거나 BJ에게 선물할 수 있다. 또 BJ는 선물받은 초콜릿을 자신의 방송 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료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인기 BJ ‘양띵’은 고정 애청자가 50만 명에 이른다. 인기 아이돌 동방신기 팬클럽 회원이 6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가진 셈이다.

아프리카TV 게임센터의 또 다른 매력은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카카오 게임하기를 접하면 게임 제작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최대 49%다. 반면 아프리카는 최저 50%이상을 보장한다.

아울러 향후 매출 수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프리카TV 경영기획실 안세림 과장은 “카카오를 따라잡기보다는 게임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게임 생태계 다양성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모바일 광고 시장 ‘쑥쑥’ 지난해 4160억원 규모

지난해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는 416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13년 모바일광고 산업통계 및 광고효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는 4160억원으로 전체 광고 시장(9조8016억원·제일기획 조사)의 약 4.2%를 차지했다.

모바일 웹이나 앱의 이용자에게 배너, 텍스트 등의 형식으로 표출되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지난해 2004억원 규모로 전년(907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하며 전체 모바일 광고의 성장을 이끌었다. 신규 광고 방식인 보상형 광고(모바일 앱 등으로 광고를 시청한 이용자에게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광고)도 582억원 규모로 눈에 띄게 성장했다.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 광고가 이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광고 수단으로 꼽혔으며, 식음료(26%), 게임·오락(24%), 패션·화장품(23%) 등이 모바일에 적합한 분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모바일 광고 관련 사업자(광고대행사, 미디어렙사, 매체사, 플랫폼사 등 152개사), 광고주(85개사) 및 일반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시장 규모 ▲사업자별 매출 ▲광고 유형별 클릭·구매율 ▲광고 유형별 효과성 및 거부감 ▲모바일 광고 적합 상품 유형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온라인 카페 알림’ 사칭 신종 스미싱 급증 ‘주의’

유명 포털의 온라인 카페 알림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랩은 16~17일 동안 이 같은 스미싱이 266건이나 신고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스미싱은 ‘[D***]고객님 명의로 카페에 답글 1개가 등록되었습니다. m****.pw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고객님 명의로 카페에 답글 등록되었습니다. fil****.pw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 실제 푸시 알림과 유사한 두 가지 유형의 문구로 구성돼 있다.

스미싱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실행할 경우 유명 포털의 로고를 사칭한 아이콘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생성된다. 이 악성 앱은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가짜 은행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수신 전화를 차단하고, 주소록과 수신 문자메시지(SMS)를 공격자에게 유출하는 기능 등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악성 앱은 최초 실행 시 관리자 권한을 요구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면 자신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동시에 바탕화면에 생성됐던 아이콘을 삭제해 사용자가 앱이 설치된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위장까지 한다.

/이국명기자 kmlee@

KT가 만든 웹툰 “초콜릿 쏩니다” KT는 ‘3배 빠른, 많은, 넓은’ 광대역 LTE-A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웹툰 시리즈를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웹툰 공유 시 초콜릿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KT 제공

<다음드라마>

손안의 ‘다드’ 흥행 뜨겁네

포털 다음이 드라마 공급업체로도 맹활약 중이다. 자체 모바일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해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방영하고 있다.

‘미생’ ‘러브포텐’ 등은 작품성은 물론 흥행에도 성공한 다음의 대표적인 드라마다.

다음은 새 모바일 드라마 ‘러브인메모리2-아빠의 노트’(사진)를 26일부터 단독 방영한다.

‘러브인메모리2-아빠의 노트’는 교보생명이 기획하고 디지털씨앤엠이 제작을 담당했다. 제작사인 디지털씨앤엠은 지난해 국내 최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드라마인 ‘러브인메모리1’를 선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총 8부작으로 방영되는 ‘러브인메모리2-아빠의 노트’는 다음의 모바일 콘텐츠 유통 플랫폼인 스토리볼에서 26일부터 매주 2편씩 4주 동안 방영된다.

이번 작품은 아빠 현수(정웅인)가 가족들에게 이별을 준비하는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내용이다. 특히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강인한 인상을 남긴 배우 정웅인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아버지이자 감동적이고 현실적인 캐릭터로 돌아와 연기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성훈기자

PC·스마트폰 문제 원격 해결 알약안심케어 서비스 출시

AS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문가에게 PC와 스마트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보안기업 이스트소프트는 이 같은 특징을 지닌 ‘알약안심케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알약안심케어는 PC와 스마트폰의 느려짐, 잦은 오류 발생 등의 문제 해결은 물론 악성코드 감염이나 스미싱 공격 피해를 원격에서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원격 점검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제공되며, 장소 제한 없이 전문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스트소프트는 현대해상과의 제휴를 통해 알약안심케어 1년권 가입자에게 보안사고 피해를 보상해주는 ‘개인정보안심보험’ 혜택을 준다. 이 보험은 보상을 받기 어려운 해킹 및 스미싱 피해에 대해 1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국명기자

다이어트·건강 두 토끼 잡아라

영양 가득한 저염·저칼로리 제품 '눈길'

다이어트의 의미가 단순한 미용을 넘어 건강관리 차원으로 일상화되면서 원재료와 영양 성분을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비만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지방이나 탄수화물·나트륨 등을 무조건 제한하면 피로감이나 우울증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오히려 체중 조절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런 성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지방이나 혈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올가홀푸드의 '지중해 카놀라유 넣은 참치캔'은 대두유 대신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카놀라유를 사용해 살찔 염려를 던 제품이다. 다이어트 시 필요한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데다 카놀라유에 트랜스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함유돼 있지 않아 다이어트 식이요법에 활용하기 좋다.

그레인팩토리의 '건강한 아침곡물'은 옥수수로 만든 일반 시리얼 제품과 달리 혈당지수가 낮은 현미와 흑미·율무·흰콩 등으로 만든 식사 대용식이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찌고 볶는 방법으로 만들어 칼로리도 낮다.

최근 과도한 염분 섭취가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저염 장류가 등장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레퓨레의 '순수된장' '순수간장'은 저염도 키토산 결합 소금을 사용해 소금량도 일반 장류 대비 20% 이상 낮춘 제품이다. 적당한 짠맛에 재래식 전통장 특유의 깊은 맛이 어우러져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이 가능하다.

고구마를 기름에 튀기지 않고 쪄서 말린 청정원의 '고구마츄'는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이어트 간식이다. 고구마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꼽히는 혈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이다.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견과류는 원활한 신진대사를 돕고 포만감을 높여줘 다이어트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다. 초록나무의 '키즈랑 넛츠랑'은 아몬드·헤이즐넛 등 다양한 견과류를 한번에 섭취할 수 있는 영양 간식이다. 텁텁할 수 있는 식감을 크랜베리로 보완해 상큼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정영일기자

복분자주 남심 겨냥 비타민음료

식품·주류업계 소비 확산 위해 '크로스 젠더 마케팅' 활발

최근 기업들이 성별에 따라 '편애'받던 제품의 타깃 소비자 확장을 통해 소비 확산과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크로스 젠더 마케팅(Cross-gender Marketing)'에 적극 나서고 있다.

크로스 젠더 마케팅이란 특정 성별이 주요 구매층으로 확고한 시장에서 반대 성별에 대한 마케팅을 확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비타민음료나 복분자주·숙취해소제 등 성별에 따른 제품 충성도가 확고히 나뉘는 제품들도 이제는 반대 성별의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불황 속 매출 증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현대약품의 제로칼로리 비타민C 음료 '프링클'(사진)은 비타민 음료 시장에서 이색적으로 남성 소비자 확보에 나섰다. 특히 지난달에는 10~30대 남성들을 공략하기 위해 레이싱 모델 이다희를 모델로 기용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섹시 온라인 콘텐츠를 선보였다.

'직진터치' '직진키스' 등 파격적인 스토리 라인으로 주목받은 온라인 콘텐츠 시리즈는 현재 누적 조회수가 11만 건을 넘어서는 등 남성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주류 관련 업계도 여성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12년 여성의 월간 음주율(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은 42.9%로 2005년보다 6.0%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의 음주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관련 업계에서도 여성을 타깃으로 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배상면주가의 '복분자음'은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복분자주다. 남성 기력 보강에 좋은 대표적인 약재로 알려진 복분자는 여성의 불임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타민 A·C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좋다.

CJ제일제당에서는 여성 전용 숙취해소 음료 콘셉트의 '컨디션 레이디'를 지난해 12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음주 후 여성의 위와 간 손상을 막기 위해 헛개나무 열매 농축액 등 기존 헛개컨디션 성분을 유지하면서 여성들의 피부 보습에 좋은 히알루론산 성분이 추가됐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가전, 정품과 다르면 100% 환불" 홈플러스는 18일 대형마트 3사 중 처음으로 LG전자·삼성전자와 함께 손잡고 '가전 정품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 점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2개 가전사의 제품이 시중 판매 제품과 다르면 100% 환불한다. /홈플러스 제공

야쿠르트 아줌마 복장 44년만에 바뀐다

야쿠르트 아줌마의 복장이 44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한국야쿠르트는 18일 야쿠르트 아줌마의 유니폼을 유명 패션 디자이너 정구호씨와의 작업을 거쳐 3월경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44년 동안 야쿠르트 아줌마의 복장은 기능성이나 디자인이 조금씩 계속 바뀌었다. 하지만 트레이드 마크인 노란색 상의와 모자는 변하지 않았다. 이번 정구호 디자이너와의 작업을 통해 세련되고 젊은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야쿠르트 아줌마 복장은 계절별로 춘추복을 비롯해 하복과 동복이 지급된다. 외부 활동이 많은 점을 고려해 더위와 추위에 강한 기능성 소재로 만들었다.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1971년 고객을 직접 찾아가 제품을 판매하는 야쿠르트 아줌마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47명으로 시작한 야쿠르트 아줌마는 현재 1만3000여 명으로 300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영일기자

개성만점 '특피 핸드백' 인기

최근 소가죽 가방 대신 악어·타조·뱀 등 독특한 가죽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특피 핸드백'이 인기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3일까지 강남점 9층 이벤트홀에서 '특피 핸드백 대전'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백화점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명 '박근혜 대통령 핸드백'으로 유명해진 '호미가'(사진 왼쪽)를 비롯해 유명 여배우들이 자주 들고나와 인기를 끈 '힐리앤서스'(오른쪽)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 미입점 브랜드인 'T.O.L.D'와 '라디체'를 포함해 '로사케이', '지안코미나' 등 9개의 특피 브랜드도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인다.

/김지민기자 langkim@

AI 누른 올림픽 열기

닭·오리 매출 늘어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얼어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닭과 오리고기의 매출이 대형마트에서 동계올림픽 특수로 인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시작 직후인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매출을 집계한 결과 '생닭'이 10.7%, '오리고기'가 30.8%, '치킨'이 21.7%, '계란'이 22.5% 매출이 증가하며 동계올림픽 특수가 AI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AI는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군 무림리 소재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가금류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해 출하를 앞둔 양계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동계올림픽 직전인 2월 2일부터 8일까지 이마트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생닭'은 24.4%, '오리고기'는 13.1%, '치킨'은 18.9%, '계란'은 11.5%가량 각각 감소하는 등 가금류 수요가 주춤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이 시작된 8일 이후부터는 서서히 매출이 반등했다.

롯데마트 측은 2월 10일부터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가 오후 시간대에 몰리면서, 야식 상품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계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인 2월 2일부터 8일까지 실적 비교 결과 10일부터 16일까지 '생닭'은 18.8%, '오리고기'는 10.1%, '치킨'은 18.4%, '계란'은 11.4% 매출이 각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수입 맥주·탄산음료·생수 등 관련 상품의 매출도 10~50%가량 늘었고, 전주 대비도 3~30%가량 매출이 증가하는 등 관련 상품의 매출이 큰 폭으로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일기자

OD MUSICAL COMPANY, CJ E&M &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Book, Music & Lyrics by JIM JACOBS and WARREN CASEY

10th ANNIVERSARY

GREASE

Grease!

3월 14일! 화이트데이 준비 끝!

대한민국 모든 커플들을 위해 태어났다!

스타일리쉬 펍 레스토랑

식사 패키지

그리스 R석 1매 + 식사권 1매

~~약 92,000원~~ ▶ **68,000원** (VAT 포함)

화이트데이 주간(3.11~3.14) 식사패키지 구매 시 경품증정!

No.1 뮤지컬 그리스

2013.10.22~ OPEN RUN | 대학로 유니플렉스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기업 인재상 부합 여부” 취업 당락에 영향 준다

취업하려면 해당 기업의 인재상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125명을 대상으로 스펙 등의 자격 조건이 아닌 인재상 부합 여부에 따라 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한 경험을 물어본 결과, 47.2%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때 '합격'(88.1%, 복수 응답)으로 결정했다는 응답이 '불합격'(50.8%)보다 더 많았다.

또 이들 중 무려 94.9%가 인재상 부합 여부가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선호하는 인재상으로는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열정형'(27.2%)이 1위를 차지했다.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성실형'(26.4%), '다양한 능력을 갖춘 멀티플레이어형'(11.2%), '업무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실전형'(7.2%), '가르치는 것은 모두 흡수하는 스펀지형'(5.6%) 등이 뒤를 이었다. /이국명기자

시겟줄에 '메시지 포켓' 달렸어요

18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에서 모델들이 예거르쿨트르의 여성용 시계 '랑데부 나잇 & 데이'를 선보이고 있다. 이 시계는 스트랩 안쪽에 손글씨로 쓴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시크릿 포켓을 장착한 페이턴트 레드 스트랩이 특징이다. 가격은 3000만원대. /연합뉴스

웰던투 '패션폴리오 어워드'

패션 포트폴리오만으로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이색 행사가 열린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만든 포트폴리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 웰던투(Welldone.to)는 다음달 16일까지 '패션폴리오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어워드는 나이·전공·국적·학력 등을 불문하고, 평소 패션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의류·액세서리·잡화·기타 부문 등이다. 스케치·목업·시제품·완성품 등 직접 만든 작품을 이미지(GIF, JPG, PNG), 파일(DOC, PPT, PDF), 동영상(youtube, vimeo) 등 작품에 맞는 양식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1등(1명)은 상금 200만원과 함께 홍대와 삼청동에 위치한 오브젝트 매장에 1년간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2등(1명)과 3등(2명)에게도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의 상금과 함께 오브젝트 매장에 3~6개월 동안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국명기자

끼 '샘' 솟는 67세 청춘기업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⑨ 샘표

3개월마다 맘껏 노는 펀데이 직원끼리 연차선물 이색 제도 요리·연극… '됨됨이 면접' 짱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간장'이라는 로고송으로 유명한 식품기업 샘표는 창립 67년에 빛나는 국내 대표 장수 기업이다. 하지만 웬만한 벤처기업도 울고 갈 만한 톡톡 튀는 젊은 기업 문화를 자랑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펀데이'다. 말 그대로 3개월에 한 번씩 팀별로 하루를 정해 신나게 노는 날이다. 놀이 방식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고 비용도 1인당 3만~12만원까지 회사에서 지원한다. 특히 펀데이를 가장 신나게 보낸 팀에는 상품권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네일아트, 도자기 체험, 심리치료 카페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회사명만큼이나 '샘'솟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샘표 직원들은 동료나 선후배에게 "밥 한번 살게" 대신 "내 연차 선물할게"라고 고마움을 표현한다. '휴가 나누기'라는 이색적인 제도를 도입한 덕분이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사내 전사적자원관리(ERP)에서 잔여 휴가일수를 확인한 후 선물하고 싶은 직원의 이름으로 신청하면 된다. 덕분에 아직 연차가 없는 신입사원이나 병원 치료 등으로 휴가가 부족한 직원들도 동료들의 도움으로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샘표 직원들이 사내에 위치한 식문화연구소 지미원에서 요리를 체험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2008년 시작한 가족 워크숍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마련한 이 워크숍은 매년 50여 가족을 선발해 1박2일 여행을 무료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부모님과 함께 유명 관광지를 찾는 '부모 워크숍', 자녀들과 추억을 쌓는 '자녀 워크숍'으로 구성돼 있어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서울 충무로 본사와 경기 이천, 충북 영동·조치원 등의 공장, 오송 연구소 직원들이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실내 클라이밍 등을 함께 즐기며 동료애를 다지는 '팀빌딩'도 샘표의 젊은 기업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독특한 '시츄에이션 면접'

샘표의 인재 선발 방식도 기업 문화만큼이나 독특하다.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임원면접 이외에 요리·연극이라는 이색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인·적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도입한 연극면접은 12명으로 이뤄진 조별로 특정한 상황을 주고 대처법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난파된 배에서 10명만 구조할 수 있는 경우'란 상황을 5분짜리 연극으로 꾸미게 한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성실성과 대인관계 능력 등을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10년 째 이어온 요리면접은 4~5명이 한 조로 음식을 만들어 프레젠테이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순히 음식을 잘 만드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성과 팀워크, 창의력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김서인 인사팀 이사는 "연극·요리면접이 구직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서류나 일반 면접에서는 알기 힘든 구직자들의 숨은 인성을 살펴볼 수 있다"며 "연극·요리에 자신이 없더라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kmlee@metroseoul.co.kr

이런 인재를 원한다

토익 0점이어도 '순수 만점'이면 좋아!

"샘표는 학교·전공·학점·어학 점수는 물론 출신 지역에도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합니다. 심지어는 샘표에 두 번 이상 지원하는 취업 재수생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김서인(사진) 인사팀 이사는 채용 과정에서 스펙보다는 사람을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채용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

▶▶스펙 쌓기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취업 준비는 하나도 돼 있지 않은 구직자가 많다.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 공부도 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고 보자는 구직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면접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스펙 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됨됨이가 뛰어나고 가능성이 보이는 구직자를 선발하기 위해 요리·연극면접은 올해도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채용 규모는.

▶▶신입직원으로 상반기 20명, 하반기 50명 정도 뽑을 계획이다. 상반기 채용 공고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합격 비법이 있다면.

▶▶면접관이 바라보는 구직자들은 '순수'해야 한다. 젊은 열정과 솔직함을 당당하게 보여줘야지 스펙 등으로 기교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해 뽑은 신입사원 45명 중 5명은 토익 점수조차 없지만 자신의 열정과 샘표에 대한 애사심을 훌륭히 드러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이국명기자

장윤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스피치트레이닝 ⑪

토론할땐 상대 발언 잘들어야 반박 수월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약한 스피치가 바로 토론이다.

주입식 교육과정과 경직된 장유유서 인식 때문에 제대로 된 토론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으면 설전보다는 눈치 보기에 급급한 분위기도 원인이다. 하지만 말로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토론 능력은 직장인의 생존 덕목 중 하나다.

W스피치의 도움을 받아 수강생들과 두 명씩 찬반으로 나뉘어 '과도한 성형수술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모의 토론을 벌여봤다.

찬반 토론에서 첫 발언은 찬성팀에서 하는 것이 관례다. 기조 발언은 주제에 대한 설명 및 논쟁점, 찬성팀의 입장을 넣어 구성하면 된다. 발언이 너무 길면 안 되겠지만 짧은 것도 문제다. 적당한 발언 시간은 1분30초 정도로 2분 이상 넘어가면 논지가 흐려져 장황해진다.

토론에 참여하면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다. 상대방의 발언을 잘 들어야 반박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메모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좋다.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하면서 상대방의 논리적 빈틈을 떠올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너무 메모에 집중하면 토론 흐름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토론은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 이론, 무리한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 성형수술 관련 최신 뉴스, 성형수술의 긍정적 기능 등에 대해 폭넓게 알고 있으면 탄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상대팀의 토론 내용을 미리 예상해 역공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의외로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태도다. 사람들은 토론 내용보다 토론자의 모습을 더 인상깊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매너 있는 토론 자세, 우렁찬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 단정한 옷차림 등이 토론의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신경써야 한다. /unique@

눈 찡그리면 '안경 필요해' 신호

초교 입학즈음 시력 완성…눈건강 체크하세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라면 걱정이 많은 시기다.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아이가 학교에 적응은 잘할지 등 고민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그중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의 눈 건강이다. 학습 시간이 늘어나고 시력이 완성되는 시기인 만큼 시력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근시, 아이 행동으로 파악 가능

신입생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 칠판과 책을 보며 수업을 듣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 또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만 7세가 되면 거의 모든 시 기능이 완성되는데 이때는 근시를 조심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영상 기기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어린이 근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아이들은 시력이 저하돼도 쉽게 인식을 하지 못해 부모에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모들은 시력이 저하됐을 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기억하고 평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특히 아이가 ▲눈을 찡그리며 사물을 보거나 ▲자주 눈을 비비거나 ▲TV나 책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하거나 ▲머리를 한쪽 방향으로 기울이고 사물을 보거나 ▲자주 넘어지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안과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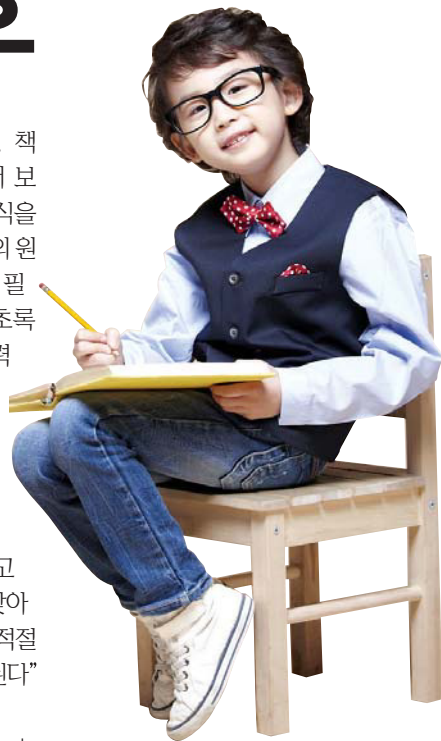
◆약시 치료 시기 놓치면 평생 장애

근시와 마찬가지로 소아 약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약시는 눈에 이상이 없지만 정상 시력이 안 나오고 안경이나 렌즈로도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약시의 원인은 좌우 시력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동시·사시·눈썹 찔림 등인데 이런 증상이 계속돼 눈의 시력이 발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약시의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시력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기에 치료를 할 경우 완치율은 95% 정도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치료를 시작할 경우에는 완치율이 23%까지 떨어진다. 이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반드시 입학 전 정밀 시력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TV나 스마트폰, 책 등을 볼 때는 너무 가까이에서 보지 않도록 지도하고 반드시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는 등 시력 저하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 갑자기 빨간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면 시력 저하가 왔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도록 한다.

김진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원장은 "부모가 아이의 눈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안과 전문의를 찾아 안경 착용이나 약물 점안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CJ오쇼핑 임직원들, 소외 청소년 200명에 졸업선물 CJ오쇼핑은 전국의 소외계층 청소년들 중 졸업을 앞둔 초·중·고등학교 학생 200명을 선정해 CJ오쇼핑 임직원 200명과 일대일 매칭해 학생들의 관심사 및 가정 환경을 고려해 구매한 3만원 상당의 각기 다른 선물과 격려 편지를 전달하는 '2월의 특별한 졸업선물' 활동을 펼친다. /CJ오쇼핑 제공

이탈리안 셰프 느낌아니까!

쉐라톤 인천 호텔 '베네' 28일부터 초청 프로모션

쉐라톤 인천 호텔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베네(BENE)에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이탈리안 셰프 마르코 카마라타(Marco Cammmarat·사진)를 초청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5년의 요리 경력과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진 카마라타는 현재 태국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며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엄선된 재료로 업그레이드된 이탈리아 요리를 준비할 예정이다.

또 3월 5일에는 이탈리안 요리를 직접 배워 볼 수 있는 쿠킹 클래스가 마련되며 3월 7일 저녁에는 5가지의 코스요리에 어울리는 프리미엄 이탈리아 와인이 제공되는 와인 디너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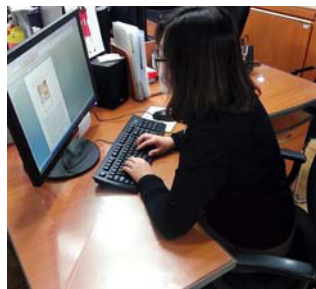
이외에도 셰프가 이번 프로모션을 위해 준비한 특별 메뉴도 준비된다. 특별 메뉴는 2만4000원부터다. 문의: 032)835-1716~7

쿡쿡 쑤시는 꼬리뼈 '디스크 주의보'

외상 없는데 통증 지속땐 퇴행성 변성증 발병 우려

넘어지거나 운동을 하다 다치지 않았는데도 꼬리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눈에 띄는 부상이 없었음에도 콕콕 쑤시고 뻐근하고 묵직한 꼬리뼈 통증이 계속된다면 허리디스크 변성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꼬리뼈 통증 있으면 바로 병원 찾아야

외상이 없는 꼬리뼈 통증이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서 있거나 걸어다닐 때보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꼬리뼈 통증의 원인으로 바르지 않은 자세로 인해 꼬리뼈가 지속적으로 자극받고

꼬리뼈 부위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통증은 초반에 쿡쿡 쑤시는 듯한 통증에서 점점 뻐근한 통증으로 악화되는데 이는 디스크 변성증을 경고하는 통증일 수 있다.

이 질환은 허리디스크 탈출증(허리디스크)과는 달리 디스크의 모양은 그대로지만 퇴행성 변화로 인해 그 기능이 상실되는 질환이다. 즉 척추뼈 사이에서 척추가 받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딱딱해지거나 찌그러져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디스크 변성증이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적 치료와 운동요법으로 치료하게 되고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힘들 경우에는 경막외 주사치료와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원인 모를 꼬리뼈 통증이 계속된다면 디스크 변성증을 의심해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황재용기자

수요일엔 던킨도너츠 '3+3'

던킨도너츠(www.dunkindonuts.co.kr)는 지난 1월 출시한 레드벨벳 도넛 100만 개 판매 돌파를 기념해 '해피 수요일' 이벤트를 실시한다. 레드벨벳 글레이즈드 3개를 구매하면 글레이즈드 3개를 추가 증정하며 권장 소비자가격 3300원에 만나볼 수 있는 이벤트다. .

2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5, 12, 19, 26일)마다 1인당 글레이즈드 4팩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당일 한정 수량 판매로 조기 품절될 수 있다. (일부 점포 제외, 해피포인트 적립 및 할인쿠폰, 타 행사 중복 참여 불가.)

보리보리 '베이비페어' 진행

㈜트라이씨클(대표 최형석)이 운영하는 유아동 종합몰 '보리보리'는 오는 3월 9일까지 온라인에서 '베이비페어' 행사를 벌인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보리보리 베이비페어에서는 ▲'보리 기프트박스' 증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우수 홍보 상품 증정 ▲모여라 공짜체험단 운영▲'쇼핑지원 쿠폰팩' 지원 등 네 가지의 풍성한 이벤트와 함께 유아용품 특가존을 마련해 최대 83%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서울시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의류부문 1위(85.5점)를 차지했다.

뉴스&뉴스

익스피디아 호텔상품 할인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봄방학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서울·부산·제주도에 있는 32개 호텔 상품을 최대 60% 할인하는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익스피디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호텔을 예약할 수 있으며 숙박 가능 기간은 4월 1일까지다.

가루다, 발리·자카르타 특가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발리와 자카르타 여행객들을 위한 두 가지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먼저 '자카르타 이그제큐티브(비즈니스) 클래스 특가'는 3월 31일까지 출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천~자카르타 구간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왕복 항공권을 160만원(세금 별도)에 제공한다.

또 다음달 27일과 28일 출발하는 인천~발리 구간의 '네피데이 특가'는 40만원(세금 별도)에 판매된다.

매달 하루만 초특가 항공권

●캐세이패시픽이 한 달에 한 번, 단 하루 동안 초특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인 '라스트 미니트 딜(Last Minute Deal)'을 출시했다.

프로모션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4시간 동안 캐세이패시픽 홈페이지 내 해당 배너를 통해 진행되며 이번 라스트 미니트 딜은 3박4일 일정의 인천~홍콩 왕복 항공권으로 구성된다.

'디즈니 왕국' 신학기 용품 점령

애니 '겨울왕국' 열풍 타고 인기 캐릭터 상품 출시 붐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열풍에 힘입어 신학기 용품에도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가 대거 등장했다.

월트디즈니컴패니코리아 관계자는 "입학 시즌을 앞두고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킨 '겨울왕국' 관련 서적은 물론 어벤져스·스파이더맨·미키마우스 등 디즈니 캐릭터를 반영한 학용품·의류 등 신학기 용품이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세는 '겨울왕국'이다. 최근 누적 관객 수 900만 명 돌파라는 성적을 거둔 영화 '겨울왕국'은 책은 물론 스티커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는 '디즈니 겨울왕국 무비 스토리 북'을 비롯해 스티커북·무비클로즈업·무비코믹북·영화로 읽는 영어원서 등 관련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는 중이다.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학생용 가방도 인기다.

스포츠 브랜드 케이스위스는 '디즈니 콜라보레이션 아동가방'을 선보였는데, 스파이더맨·미니마우스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디자인에 기능성까지 갖춘 제품들이다. 르까프는 디즈니 영화 '비행기'의 등장인물과 영화 '아리스토캣'의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한 백팩과 모자를 출시했다.

이 밖에 프린세스 캐릭터 신학기 노트, 프린세스 소피아 사인펜, 어벤져스 연필·지우개 세트 등 아기자기한 캐릭터 학용품도 다양하게 나와있다.

패션 브랜드 랩은 대학 신입생들을 겨냥해 미키마우스 백팩과 운동화를 내놨다. 여성스러우면서도 풋풋한 캠퍼스 패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다.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브루노말리 역시 2014년 봄·여름 컬렉션으로 '디즈니 에디션'을 론칭했다. 디즈니 대표 캐릭터인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를 모티브로 클래식한 핸드백과 액세서리 등으로 대학 새내기들의 소녀 감성을 깨우기에 충분하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별에서 온' 윤광 몸매…전지현, 일리 화보 '광채' 배우 전지현이 반짝반짝 빛나는 '윤광 보디' 라인을 공개했다. 한방 탄력케어 브랜드 일리는 18일 전지현과 함께한 신제품 '프레쉬 모이스춰' 라인 화보 촬영 컷을 공개했다. 화보 속 전지현은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누드톤의 착시 드레스를 입고 황금 비율의 보디 라인과 광채 나는 피부로 고혹적인 매력을 뽐냈다. /일리 제공

올봄 티셔츠는 '모여라, 동물원'

사자·호랑이·오리·말 등 캐릭터 프린팅 상품 인기

봄을 앞두고 동물 캐릭터 패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

18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백화점에 입점한 패션매장에서 동물 프린팅 상품의 판매율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물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는 50여 개 이상으로 사자·호랑이 맹수부터 오리·말·원숭이 등 귀여운 캐릭터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로는 오리 티셔츠로 유명한 팬콧과 말 문양 로고의 라빠레뜨, 사슴 프린팅을 선보인 지프 등이 있다. 이 업체들은 이달 들어 신학기 수요까지 겹치며 매장 방문 고객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베네통의 사자 티셔츠, 코인코즈의 호랑이 프린팅 티셔츠, 티니위니 사슴 패턴 카디건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스타일난다의 버드 자수무늬 쿠션 느낌의 맨투맨 티셔츠는 품절돼 재입고되기도 했다.

양임 롯데백화점 영패션MD팀 상품기획자는 "봄 시즌이 다가오자 개성 넘치는 캐릭터 의류를 찾는 고객으로 매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앞으로 스토리와 감각적인 디자인이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가연웨딩, 필리핀서 태풍 피해복구 감사패

웨딩 컨설팅회사 가연은 이하진(사진) 대표이사가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후원에 대한 공로로 필리핀 레이테주 주지사 및 이글스카우트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레이테주는 지난해 11월 초대형 태풍 '하이옌'에 의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당시 태풍으로 6000명 이상이 숨지고 410만여 명이 집을 잃는 등 레이테 일대 지역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가연웨딩은 사단법인 연우와 함께 지난해 말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의료봉사를 후원해 주민들의 2차 피해를 줄이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지원했다.

이대표는 "어느 정도 복구된 후에도 현지의 각종 인프라 건설을 도와 마을 공동체가 유지되고 주민 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원기자

킨텍스 '경향하우징페어' 일본관 목재 전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킨텍스에서 열리는 종합건축견본시 '제29회 경향 하우징페어 2014'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제트로는 이 자리에서 일본관을 설치하고 일본산 목재의 판로 확대를 목표로 고급 품질의 일본산 삼나무 및 편백나무를 재료로 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방문객들은 15개사가 마련한 30개 부스를 관람할 수 있으며 특히 15개사 중 14곳이 준비한 편백나무 상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통나무·구조재·솔리드판·불연성 벽지 등 많은 연구를 거쳐 생산된 고부가가치 상품도 전시된다. /김지민기자

정도전에 '빙의'된 펜 끝

김탁환 작가 '소설 조선왕조실록'의 첫 작품…미처 몰랐던 '정도전' 탐색

최근 역사를 다룬 수많은 소설과 영화, 드라마들이 '현대성'을 앞세워 말단적인 재미만을 추구하며 역사의 품격을 없애고 예술적 풍미를 퇴보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역사소설의 현대성이란 자극적인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 안에 기발한 상상을 담아 시대의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김탁환 작가는 이미 여러 작품에서 익히 다뤄진 정도전이라는 인물에 대한 깊은 탐색이 부족하다고 판단, 정도전의 고민을 정도전의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오랜 시간을 고민했다. 또 정도전의 일생 전부가 아닌 가장 빛나면서도 아픈 지점을 찾고자 노력했다.

저자는 이성계가 해주에서 낙마하는 순간부터 정몽주가 암살당하는 순간까지, 즉 고려라는 불꽃이 사그라지고 조선이라는 동이 튼 18일간의 역사를 담아 이 책을 완성했다.

혁명, 광활한 인간 정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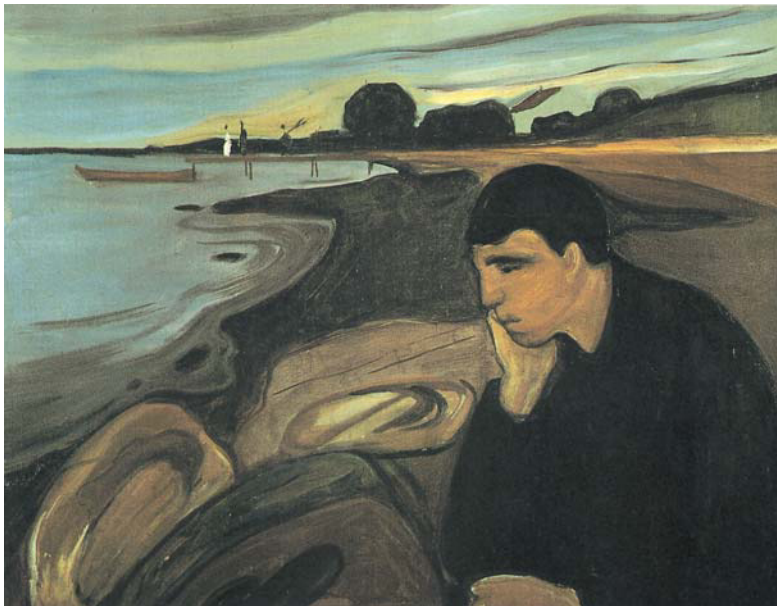
김탁환/민음사

더욱이 책은 정도전·정몽주·이성계 등 세 사람을 둘러싼 사건과 갈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고려와 조선을 통해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등을 고민하며 백성을 위한 나라를 열망했던 선비 정도전의 내면을 치열하게 그려내고 있다.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살다 간 정도전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초심인 백성을 위한 나라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았다. 정도전이 보여줬던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민본주의, 부국강병 의지가 21세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나라의 잘잘못을 평하는 많은 훈수꾼들과 달리 자신의 계획대로 한 국가를 부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운 혁명가의 얘기가 색다른 재미로 찾아온다.

총 60여 권으로 출간될 예정인 '소설 조선왕조실록'의 시작을 알리는 책을 통해 소설로 재구성된 역사의 흔적과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조선의 흥망성쇠를 만날 수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 댄디로 살아가기…멋있는 고행

댄디는 사회로부터 분열된 인간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지리멸렬하고 세속적이고 부패한 사회를 대신할 다른 사회, 즉 이상세계를 꿈꾸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 댄디는 현실 속에 안주해 있는 자아를 소멸시키고 그것을 극복하려 한다. 타고난 자아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고상한 자아를 위해 댄디에게는 끊임없는 자기 감시의 고행이 따른다.-'멋쟁이 남자들의 이야기 댄디즘'(쥘 바르베 도르비이/이봄) 중-

/황재용기자 hsoul38@

'잠자는 건강' 깨우는 6단계 힐링 명상

화제의 책

내가 나를 낫게 한다

정수지/시공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테라피스트' 정수지씨가 쓴 이 책은 "의사·약·음식, 그 어느 것도 나를 낫게 할 수 없었다. 만성 질병과 마음의 상처·끊임없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길은 '명상'뿐"이라는 도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어렸을 적부터 폐질환으로 병원 문턱을 넘나들며 치료와 재발을 거듭한 저자는 대학 시절 우연히 접한 명상과 호흡으로 폐결핵이 씻은 듯이 낫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심신통합치유를 공부하면서 결국 신체적 질병의 원인이 '마음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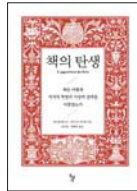
저자는 "몸과 마음의 부조화는 내면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해 모든 신체적·정신적인 질병으로 나타난다"며 "산란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힐링 명상'으로 내 안의 치유력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깨우고 바라보고 두드리는 6단계 셀프 명상 치유법을 소개했다.

먼저 몸의 감각과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내 안으로 들어가는 3단계 '감각 깨우기' '느끼기' '바라보기'로 아랫배에 에너지를 모으고, 내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3단계 '소유하기' '선택하기' '행동하기'로 내 몸의 건강한 순환을 완성하는 것이다.

책에는 저자가 실제로 외과적 수술 없이, 약 없이 질병을 완전히 이겨낸 후 마음의 평화까지 얻어낸 비결이 고스란히 담겼있다. 또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 몸과 마음을 일치시켜 치유에 이르는 힐링 명상의 원리는 물론 저자가 미국에서 힐링 요가센터를 운영하면서 만난 다양한 환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소개된다. 특히 명상과 각종 동작을 결합시킨 '액티브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박지원기자 pjw@

새로 나온 책

인문

책의 탄생 뤼시앵 페브르/돌베개

책은 '책의 탄생'이 귀족 중심이었던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 인쇄술이라는 혁명적인 기술이 유발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즉 인쇄술의 발명 과정과 책의 제작 과정, 출판인들의 작업 풍경에 대한 각종 사료를 바탕으로 서구 유럽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책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고찰한다.

만들어진 생각, 만들어진 행동 애덤 알터/알키

감정과 판단을 지배하는 '뜻밖의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색깔·공간·온도·남의 시선·편견·상징 등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분석했다.

에세이

살아있는 뜨거움 김미경/21세기북스

'언니의 독설'로 대한민국 대표 멘토로 자리 잡은 김미경씨의 에세이. 이전에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면, 이 책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다짐을 전한다. 그는 "인생이란 것은 살아가는 연습이며, 결국 불안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 엄광용/북오션

책은 고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5주기(2014년 2월 16일)를 맞아 그가 미사·강연·메모 등을 통해 세상에 내놓은 얘기를 소개한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 속에서 사랑 가득한 얼굴로 누구든지 따뜻하게 품어주는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아프리칸 러브 스토리 대프니 셸드릭/문학동네

저자는 코끼리 신생아를 인공 수유로 키우는 데 성공한 최초의 인물이다. 코끼리와 검은코뿔소 등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공감과 이해, 선구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동물을 죽음에서 구해낸 그의 경험과 회상이 가슴 따뜻하고 애틋하게 다가온다.

정치·사회

행복의 사회학 정태석/책읽는 수요일

워킹 푸어, 재벌독식, 비정규직, 갑의 횡포, 학벌 대물림, 가족 해체, 성장주의 등 2014년 대한민국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숫자와 통계로 상세히 분석하고 살펴본다. 저자는 희망은 정치에 있으며 시민들의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힘이 연대를 이뤄야 행복한 사회를 꿈꿀 수 있다고 말한다.

논객시대 노정태/반비

비판적 성찰에 가까운 1990~2000년대의 회고를 통해 당시의 다양한 인문, 사회의 담론을 담고 있다. 특히 강준만·진중권·유시민·박노자·김어준 등 시대의 대표적인 논객들의 이야기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짚어내고 있다.

경제·경영

돈, 착하게 벌 수는 없는가 존 매키/흐름 출판

미국 대형 식품유통업체 홀푸드마켓 최고경영자(CEO)인 존 매키가 자본주의가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창출한 훌륭한 체제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저자는 고객·직원·투자자·협력업체·공동체·환경이라는 6자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해답을 내놓는 것이 자본가의 본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자기계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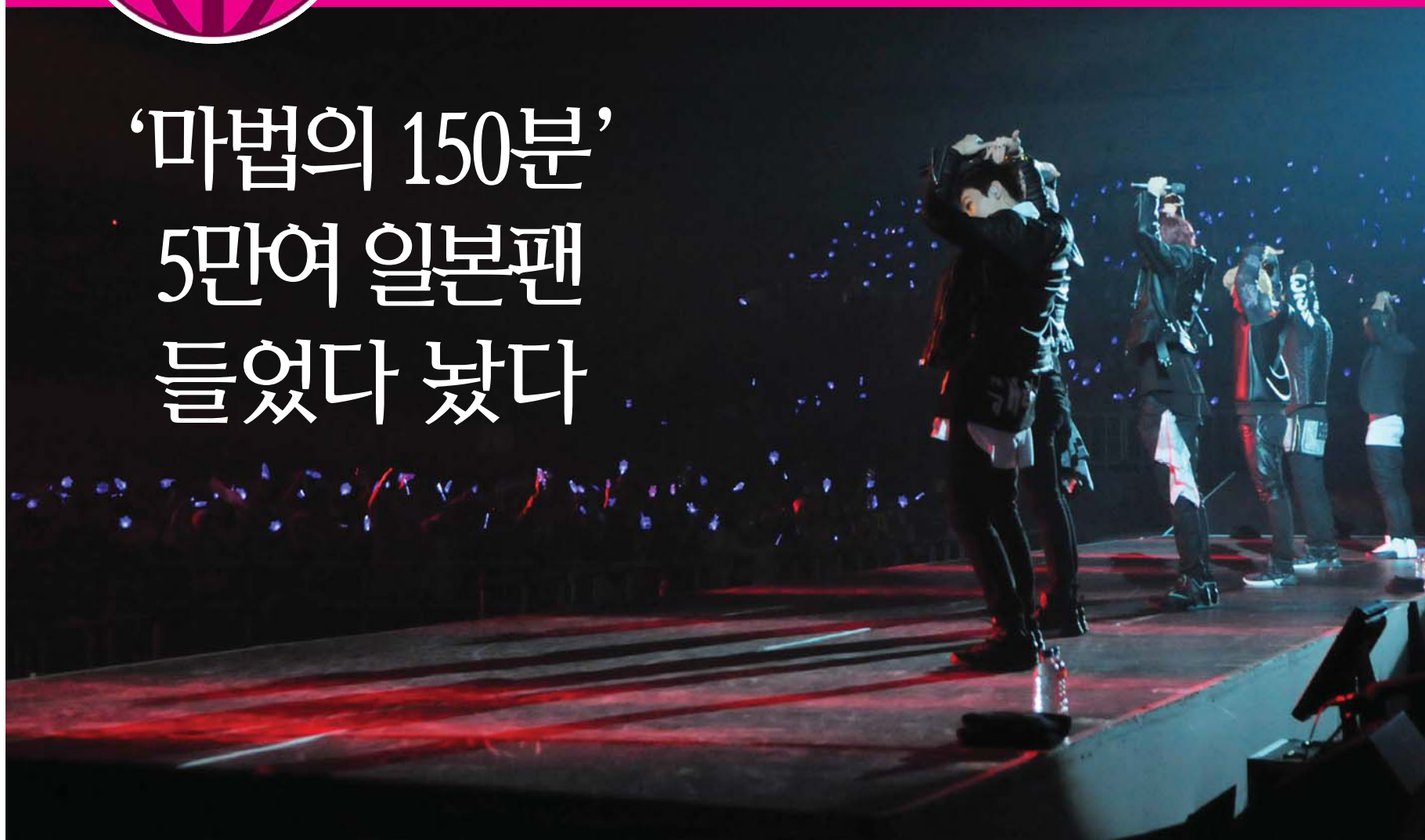
인생이란 나를 믿고 가는 것이다 이현세/토네이도

책은 21세기라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을 위한 한국 만화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현세'의 커다란 선물이다. 자신을 믿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았던 그의 경험과 철학을 통해 자기확신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과학

망할 놈의 수학 카를로 프라베티/문학동네

수학에도 스토리텔링 방식의 교육법이 강조되는 시대다. 저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루이스 캐럴의 명작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빌려와 수학이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앨리스'들에게 재미있는 수학의 길을 열어준다.

‘마법의 150분’ 5만여 일본팬 들었다 놨다

틴탑 멤버들이 18일 후쿠오카 국제센터에서 팬들의 뜨거운 환호에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다. /티오피 미디어 제공

후쿠오카 공연으로 막내린 틴탑 日 아레나 투어

‘땀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룹 틴탑(캡·천지·엘조·니엘·리키·창조)이 열정만으로 일본 열도를 홀렸다. 지난 5일 나고야를 시작으로 요코하마·오사카에 이어 18일 후쿠오카에서 강렬한 공연을 선보이며 틴탑은 일본 현지에서 정식 데뷔 없이 아레나 투어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다. 5만여 명의 팬들을 매료시킨 이들은 2시간 30여 분이 넘는 시간동안 총 30곡을 라이브로 소화하며 넘치는 에너지와 음악성으로 일본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들의 무대위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산소 탱크’ ‘두개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후쿠오카=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여섯 멤버들이 특유의 칼군무를 선사하고 있다(위). 후쿠오카 국제센터를 가득 채운 관객들이 공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아래). 창조가 팬들 가까이 가기 위해 무대 아래 통로를 누비고있다(가운데).

◆ 화려한 퍼포먼스 라이브 공연

장막이 걷히고 팬들의 환호 속에서 네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장난아냐’ ‘사랑하고 싶어’로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틴탑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와 이미 팀의 상징이 돼 버린 ‘칼 군무’로 시작부터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또 ‘긴 생머리 그녀’ ‘투유’ ‘향수 뿌리지마’ 등의 곡을 밴드 연주로 편곡해 풍부한 레퍼토리와 다양한 볼거리도 충족시켰다. 그야말로 팬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며 쉼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멤버 개개인의 음악적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개인 무대도 준비돼 음악적으로 한층 성장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캡이 선보인 ‘블랙 스킨 헤드’는 힙합적인 사운드가 돋보였으며, 창조는 ‘나이스&슬로우+댄스’를 통해 R&B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니엘의 ‘테이크 유 다운’ 솔로 무대는 섹시함이 묻어났다. 이어 천지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우타다 히카루의 ‘퍼스트 러브’를 열창하며 일본 팬들의 반응을 이끌었다. 엘조는 일본 가수 오렌지 레인지의 ‘하나’를, 리키는 신승훈의 ‘아이 빌리브’를 부르며 따로 또 같이 발라드·R&B·정통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였다.

이들과 함께 활기 넘치는 공연은 마지막 곡 ‘미치겠어’와 앙코르 곡 ‘길을 걷다가’ ‘흔들어 놔’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칼군무에 30곡 라이브쇼 두개의 심장 가진 것 같아 6인 6색 솔로무대 첫 선 더 성숙한 모습 보여줄것

◆ 멤버 전원 성인 인증 ‘한층 성숙해진 무대’

틴탑은 2010년 데뷔 당시 평균 연령 만 16.3세로 가요계 최연소 그룹이었다. 하지만 1995년생인 막내 리키와 창조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멤버 전원이 성인이 됐다. 단순히 숫자 앞 자리만 바뀐 게 아니다. 앳된 모습을 벗고 한층 성숙해진 모습은 무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니엘이 과감한 섹시 댄스를 선보이는가 하면 이번 투어를 통해 첫 모습을 드러낸 6인 6색 개성의 솔로 무대는 현지 여심을 파고들며 멤버들의 또 다른 매력 발산의 장이 되고 있다.

이날 틴탑 리더 캡은 “모두 성인이 되면서 무대에서 표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며 “앞으로 더욱 성장한 무대를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2014년 전 세계가 틴탑을 주목한다.

아레나 투어라는 거대한 산을 넘은 틴탑은 좀 더 넓게 시선을 돌리고 있다. 바로 ‘틴탑 2014 월드투어-하이킥’이다. 아레나 투어와 동명의 월드투어는 공연형 가수로 성장한 틴탑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뜻 깊은 자리다.

오는 22~23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틴탑은 국내 팬들과 함께 세계를 향한 발을 내딛는다. 크고 작은 공연을 통해 단단히 다져진 내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뛰어난 실력이 바로 세계를 바라보는 틴탑의 무기다.

틴탑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1년 뒤, 3년 뒤 성장해 가는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디자인/박은지

"정극·예능 이미지 달라 걱정"

주말극 '참 좋은 시절' 이서진 검사 역… 김희선 "작품 선택 이유는 가족"

KBS2 새 주말극 '참 좋은 시절'의 주연배우 이서진·김희선·옥택연이 '국민 드라마' 바통을 잇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50%에 근접한 시청률로 막을 내린 '왕가네 식구들' 후속작인 이 드라마의 제작발표회가 18일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주연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가난 속에서 자수성가한 검사 강동석 역을 맡은 이서진은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시청률이 높기보다 칭찬받는 드라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소감을 말한 뒤 "예전 같으면 옥택연이 맡은 터프한 캐릭터에 욕심났겠지만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인지 그런 역할은 감당할 수 없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tvN '꽃보다 할배'에서 '국민 짐꾼'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많은 분이 예전보다 친근하게 대해줘서 좋다"면서도 "시즌2가 다음달부터 방송돼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감정이입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화통한 성격의 생계형 대부업체 직원 차해원 역을 맡은 김희선은 "평소 일찍 잠이 들어 미니시리즈를 못 보는 엄마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어서 주말극 출연을 결정했다"고 출연 이유를 설명했다.

강동석의 동생이자 고등학교 때 사고 쳐 일찍 아빠가 된 강동희 역을 연기할 옥택연은 "부성애 연기가 어렵지만 국민적으로 보는 방송이니까 이곳에서 연기돌이라는 걸 각인시키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22일 첫 방송될 이 드라마는 가난한 소년이었던 한 남자가 검사로 성공한 뒤 15년 만에 떠나왔던 고향에 돌아와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18일 열린 KBS2 새 주말극 '참 좋은 시절' 제작발표회에서 주연배우 이서진·김희선·옥택연(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주 성민·배우 유아인 올해 군대 가나

경찰홍보단 오디션 합격

슈퍼주니어의 성민(사진 왼쪽)과 배우 유아인(오른쪽) 등이 서울경찰홍보단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성민과 초신성의 성제, 배우 유아인·최진혁 등 8명이 제47차 서울경찰홍보단 오디션 최종 선발 인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13일 시험을 치렀으며 최종 합격자는 신체검사와 면접을 거쳐 5~8월 중 입대한다.

이들의 소속사 측은 서울경찰홍보단 오디션에 합격한 것은 맞지만 최종 합격을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입대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홍보단은 2000년 5월 창단됐으며 경찰 위문 공연과 청소년, 어린이 등을 위한 연극과 공연을 통해 경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배우 조승우·류수영 등이 복무했으며 현재 배우 이제훈과 김동욱, 가수 허영생, 개그맨 최효종 등이 복무 중이다.

/유순호기자

40m 우주선 세트… 스케일 다른 B.A.P

내달 8·9일 단독콘서트

음악 방송 1위 행진을 펼치고 있는 그룹 B.A.P(사진)가 단독 콘서트에서 초대형 세트를 공개하며 대세 그룹의 위용을 떨친다.

이들은 다음달 8~9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단독 콘서트 'B.A.P 라이브 온 어스 서울 2014'에서 40m에 달하는 거대한 우주선 형태의 세트를 구현한다. 멤버들이 살았던 우주의 행성으로 설정된 '마토행성'에서 지구에 찾아온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무대는 거대한 규모와 섬세한 제작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서울 어택'을 콘셉트로 한 이번 공연에서 멤버들은 특유의 카리스마를 뿜어낼 예정이다. 또 팬들과 적극적으로 호흡하기 위해 돌출 무대인 '어스 존'을 만들었고, 팬들은 이 구역의 티켓을 손에 넣기 위해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음악으로 소통하는 그룹이 되겠다고 밝혀온 B.A.P는 모든 관객이 공연장 어디에서든 멤버들의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즐기며 소통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무대 활용과 동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발표한 정규앨범 '퍼스트 센서빌리티'의 수록곡 대부분을 처음으로 이번 공연에서 선보인다. B.A.P는 타이틀곡 '1004'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소녀시대 대만 앨범·노래 부문 1위

소녀시대(사진)가 '아이 갓 어 보이'로 대만 KKBOX의 2013년 연간차트 정상에 올랐다.

소녀시대는 대만 최대 온라인 음악 사이트 KKBOX가 지난 17일 발표한 '제9회 KKBOX 풍운방 연도순위' 한국어 차트에서 정규 4집 '아이 갓 어 보이'로 앨범 부문과 노래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제9회 KKBOX 풍운방 연도순위'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횟수 등의 데이터를 합산해 순위를 산정한다.

또 소녀시대는 '아이 갓 어 보이'로 미국 유튜브 뮤직 어워드에서 메인 상인 '올해의 뮤직비디오'를 수상했음은 물론,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13 올해의 노래 톱 10'에 아시아 가수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미국 음악 전문 케이블 퓨즈TV가 선정한 '2013년 가장 기대되는 앨범 44'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아왔다.

/유순호기자

신인가수 앤씨아 첫 CF 계약금 절반 기부

'제2의 아이유'를 노리는 신인가수 앤씨아(사진)가 생애 첫 CF 계약금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했다.

앤씨아는 유명 디자인회사 이노디자인이 제작하는 헤드폰(이노웨이브)과 블루투스 스피커(이노튜브)의 모델로 발탁됐다. 앤씨아는 "생애 첫 CF 촬영이라는 기쁨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최근 KBS2 '해피투게더 3'에 출연한 앤씨아의 모습을 본 이노디자인 김영세 대표가 직접 소속사로 연락을 해왔다. 방송 출연 이후 광고 섭외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생쌤'으로 데뷔해 '오마이 갓'으로 이름을 알린 앤씨아는 다음달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스타들도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애도 물결

연예계 스타들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의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17일 10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MBC 월화극 '기황후'에 출연 중인 지창욱(사진)은 트위터에 "아, 이 와중에 특보를 들었네요. 제발…"이라는 글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가수 겸 방송인 하하도 사고 소식을 접하고 "아, 너무 안타깝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도할게요"라는 글을 올렸다.

특히 NS 윤지는 "저도 오늘 오리엔테이션 축하 공연 다녀오는 길에 부산외대 사고 소식 들으니 더 마음이 아프네요. 사망자 발표가 더 이상 안 나오길. 아, 제발 얼른 다 구조되길"이라며 어린 대학생들이 희생된 데 대해 비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밖에 블락비 태일, 애프터스쿨 레이나, 가수 김그림, 방송인 서유리도 각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다.

/탁진현기자

'탈북 천재의사' 이종석

월화극 '닥터 이방인' 헝가리 로케이션 내달초 합류

배우 이종석(사진)이 SBS 새 월화극 '닥터 이방인' 촬영차 헝가리로 떠난다.

17일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극중 탈북한 천재 의사 박훈 역을 맡은 이종석은 다음달 초 '닥터 이방인' 헝가리 로케이션에 합류한다.

14일 중국 상하이 팬미팅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본격적인 촬영을 앞두고 현재 대본을 보며 캐릭터 분석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영 중인 MBC 월화극 '기황후'와 KBS2 월화극 '태양은 가득히'가 대규모 중국과 태국 로케이션으로 화려하게 막을 열었듯 '닥터 이방인'도 헝가리의 이국적인 풍경으로 초반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SBS '신의 선물-14일' 후속으로 4월부터 방영될 이 드라마는 탈북한 천재 의사가 한국 최고의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다.

현재 SBS '별에서 온 그대'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박해진이 하버드대병원 출신 천재 의사 한재준 역을 맡아 이종석과 호흡을 맞춘다.

/탁진현기자

이민호·박신혜 롯데면세점 새 얼굴

'상속자들' 커플이 롯데면세점의 새 얼굴로 활약한다.

롯데면세점은 18일 최근 종영한 SBS 수목미니시리즈 '상속자들'에서 호흡을 맞췄던 박신혜(사진 왼쪽)와 이민호(오른쪽)를 새 모델로 발탁했다. 또 이들과 함께 그룹 엑소, 가수 이루가 포함된 모델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의 모델은 기존의 모델인 장근석·김현중·최지우·슈퍼주니어·2PM 등을 포함해 총 9팀 33명으로 구성됐다. 한층 더 강화된 모델업은 중국·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롯데면세점은 뮤직비디오·단편영화 등 문화 콘텐츠도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에 이어 모델들이 세계 각지의 관광지를 여행하는 내용의 뮤직비디오 '유아 소 뷰티풀' 2탄을 제작 중이다. 제주·부산·서울 등을 배경으로 총 3편으로 구성된 단편영화 중 제주 편은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제작된 뮤직비디오 1편은 지난해 9월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롯데면세점 국내외 매장에서 공개돼 누적 조회 수 1000만 건을 넘어섰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김은숙 작가 차기작 '태양의 후예'는 블록버스터 멜로

스타 작가 김은숙(사진)이 차기작으로 SBS '태양의 후예'를 선보인다.

18일 화앤담픽쳐스에 따르면 김 작가가 드라마 '여왕의 교실'의 김원석 작가와 의기투합해 3년간 준비한 '태양의 후예'가 내년 SBS에서 방영된다.

재난 현장에 목숨을 걸고 뛰어든 사람들의 희생과 절박한 상황에서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며 가까워지는 주인공들의 사랑을 그린 블록버스터급 휴먼 멜로드라마다. 올 하반기에 해외 로케이션을 시작해 사전 제작으로 만들어진다.

영화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 놈' '마더' '방자전' 등을 제작한 바른손이 기획한 첫 번째 드라마다. 김 작가의 히트작인 '시크릿가든' '신사의 품격' '상속자'를 제작한 화앤담픽쳐스가 공동 제작에 참여했다. /탁진현기자

김수현

보아

안성기

카메오요? 쉿! 비밀이죠

'수상한 그녀' 김수현 '관능의 법칙' 보아 깜짝출연
영화 재미 위해 개봉전까지 안 알려… "효과 커"

요즘 유행처럼 깜짝 카메오를 잇따라 등장시키는 한국 영화들이 입단속에 애쓰고 있다.

영화 '수상한 그녀'의 김수현을 비롯해 '관능의 법칙'의 보아, 그리고 20일 개봉 예정인 '찌라시: 위험한 소문'의 안성기까지 톱스타들의 카메오 출연 사실을 개봉 전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것이다. 이들의 출연 사실은 홍보자료나 포스터 등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보통 톱스타들의 출연은 그 자체만으로 큰 홍보 효과가 있음에도 비밀로 부치는 것은 영화의 재미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카메오가 반전을 가진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찌라시: 위험한 소문'의 홍보사 퍼스트룩 관계자는 "스타들의 카메오 출연사실을 미리 알리는 게 마케팅적으로 더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감췄다가 개봉 후 알려져 출연이 회자되는 것이 더 큰 재미를 줄 수 있다"면서 "그렇기에 톱스타 카메오의 경우에는 더욱 비밀 유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본 사례가 바로 700만 관객을 넘은 '수상한 그녀'다. 김수현이 마지막에 잠깐 등장하는데도 혼자 200만 관객은 책임졌다는 말이 들릴 만큼 그의 출연은 개봉 후부터 두고두고 회자되며 관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출연사실을 아예 몰랐던 여성 관객들이 김수현을 보고 깜짝 놀라 함성을 지르는 경우도 많았다.

영화가 개봉된 후에도 입단속은 여전하다. 반전이 있는 인물인 만큼 중요한 스포일러 유출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상한 그녀'의 홍보사 흥미진진 관계자는 "영화 제작 단계부터 수개월의 기간 동안 카메오 출연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스태프나 관계자에게 특별히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학창시절〉

"연애경험 없어 드라마로 대리만족"

'미미' 최강창민 "연기 압박감 없어… 문가영과 키스신 한번에 OK"

동방신기 최강창민이 엠넷 4부작 드라마 '미미'에 출연하는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첫사랑의 아픔을 간직한 웹툰 작가 한민우 역을 맡은 그는 18일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지난해 신인상을 받았다는 걸 팬들은 알아도 대중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 "그렇기에 연기 압박감은 없었다.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털어놨다.

최강창민은 지난해 3월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황금을 안고 튀어라'로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우만을 바라보는 여고생 미미 역을 맡은 문가영과의 키스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학창 시절 연애 경험이 없어 드라마를 찍으며 대리만족을 한 것 같다. 감독님의 은총에 힘입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문가영은 최근 종영한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에서 왕가네 넷째 딸 해박 역을 맡아 눈도장을 찍은 배우다. 그도 키스신에 대해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NG 없이 한 번에 찍었다"면서 유쾌하게 소감을 말했다.

뭐가 그리 웃긴지… 최강창민(왼쪽)과 신현빈이 18일 열린 엠넷 '미미' 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뉴시스

이 드라마는 시공을 초월해 운명이 뒤바뀐 남녀의 아름답지만 애틋한 첫사랑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21일 첫 방송된다. 최강창민·문가영·신현빈이 출연한다.

/탁진현기자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만나는 남자 돌싱인 점만 빼면 괜찮은데… 벌써 도망갈 생각만… 결혼 힘들겠네요

Q Hey 캣우먼!

마음이 가고 잘해보고 싶은 남자가 돌싱이네요. 아이는 없고 결혼 생활도 얼마 안 한 사람입니다. 이게 남 얘기라면 전 뜯어말렸을 겁니다. 아직 몇 번 만나지 않았지만 돌싱이라는 점을 빼고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연애하는 기분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털어놨더니 사람만 좋으면 된다네요. 그러니 이건 주변의 반대가 문제가 아닌 고정관념을 깰 용기가 없는 저에대한 불안감입니다. 사람들이 그가 돌싱인 걸 알게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만감교차

A Hey 만감교차!

사회의 고정관념을 깰 용기가 없다기보다 내 머릿속 고정관념을 깰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한 나이에 엇비슷한 집안 배경이나 학벌, 직업의 초혼끼리 만나 주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부모님한테 전셋집 얻어 시작하는 그런 결혼을 해야 한다는 집착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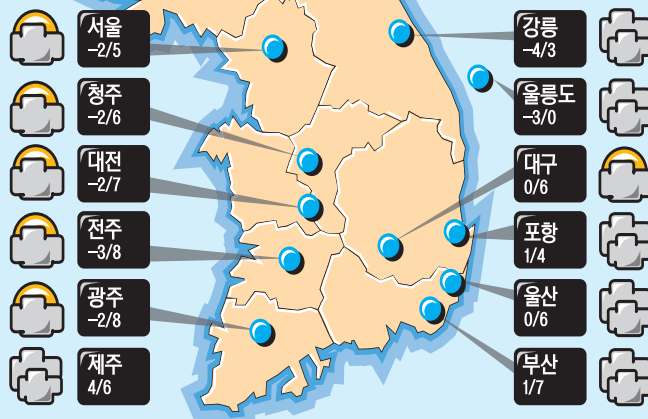
고정관념을 깰 용기가 없다는 것은 내 입맛에 맞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비단 돌싱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이것만 빼면 참 괜찮은데'를 겪게 되기 쉬울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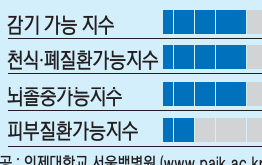
왜냐하면 이건 그냥 성향의 문제니까요. 여자보다 키가 작거나 집안이 못하거나 학벌이 낮은 등 그 누굴 데려와도 불평할 부분을 항상 발견하는 타입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좋으면 다 받아들이는 타입으로 나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돌싱'이 결혼할 때 결정적인 문제가 될 거라는 고정관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혼을 경험한 당사자에게는 불행하고 힘든 경험이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타인'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일은 아니잖아요? 설사 당사자가 부끄러워해도 그를 좋아한다면 오히려 내가 단단해져서 그 사람을 지켜줘야 하지 않나요? 몇 번 만나지도 않고 벌써 나부터 보호하거나 도망갈 생각을 하다니 어차피 결혼은 이러나저러나 힘들 것 같습니다. /캣우먼

날씨

2/19 水 일출시각 07:17 일몰시각 18:1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실내 공기가 건조하면 상부 기도 점막이 말라 작은 자극에도 목에 통증이 생깁니다. 항상 습도를 조절하고 수분과 적절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5					8
	9		6		3			
5		7		1	8			
	1					4		6
7		6	4		5	8		9
8		9					5	
			2	5		6		7
			8		7		3	
6					4			5

2		9					6	
	1		4	6	3		2	
		4			5	7		
					8		3	9
			5	7	9			
9	8		3					
		2	6			4		
	7		9	8	4		5	
	9					8		6

스도쿠 정답

4	6	1	5	7	2	3	9	8
2	9	8	6	4	3	5	7	1
5	3	7	9	1	8	2	6	4
3	1	5	7	8	9	4	2	6
7	2	6	4	3	5	8	1	9
8	4	9	1	2	6	7	5	3
9	8	3	2	5	1	6	4	7
1	5	4	8	6	7	9	3	2
6	7	2	3	9	4	1	8	5

2	5	9	8	1	7	3	6	4
7	1	8	4	6	3	9	2	5
3	6	4	2	9	5	7	8	1
5	4	7	1	2	8	6	3	9
6	2	3	5	7	9	1	4	8
9	8	1	3	4	6	5	7	2
8	3	2	6	5	1	4	9	7
1	7	6	9	8	4	2	5	3
4	9	5	7	3	2	8	1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희의 사주속으로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빌라 팔고 아파트 살까 고민중 문서운 좋지 않으니 매매 금물

선주이 여자 48년 3월 15일 음력 오전 7시45분

Q 6년 전 남편을 여의고 아들(1981년 4월 12일생)은 직장을 못 구해 제가 궂은일을 다닌 지 5년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팔고 아파트를 산 뒤 월세를 놓을까 합니다. 제 노후는 어떤지요?

A 지난주에 상담했는데 또 신청하시는 걸 보니 얼마나 답답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귀하는 늘 활동하게 되는데 문서운이 69세부터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섣불리 팔기보다는 당분간 묻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드님은 생일지에 귀인을 갖고 있어 사람 됨됨이가 순수합니다. 밤하늘의 빛과 같은 형국이라 사고가 다소 비현실적이고 남에게 속기 쉬우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아 속을 알기 힘들 것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계발에 힘쓰도록 충고하세요.

올해 결혼운 좋다고 하셨는데… 궁합 좋으니 가을에 웨딩마치

호뱅이 여자 81년 7월 15일 음력
남자 78년 10월 7일 양력

Q 성실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미래를 함께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남자분은 현재 전기 관련 직장을 다닙니다. 예전에 2014년에 결혼운이 있다고 하셨는데 몇 월이 좋을까요?

A 내 마음에 쏙 드는 상대를 만나 백년가약을 맺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결혼해 두 사람이 함께 일생을 다듬어가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2011년 상담 결과를 상기해볼 때 양띠나 용띠가 좋다고 한 바 있는데 2014년 마음이 결혼으로 향하고 있으니 9~10월에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세요. 궁합은 사주에서 생해주거나 합을 해줘야 하며 천을귀인(도움을 주는 길함)이 관성인 남편궁이 되고 있으니 좋은 점이 많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살 때 본인들이 상승하는 운을 만나야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귀하의 경우 48세 이후 상승운을 만나게 되므로 그동안은 서로 바쁘게 지내면서 결실을 일궈나가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2월 19일 (음 1월 20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변수 있어도 하던 대로 하라. **60년생** 예상치 못한 재물 들어온다. **72년생** 경거망동으로 옥에 티 만들지 마라. **84년생** 사랑은 만족할 만한 결과 얻는다.

49년생 머리 무거워지는 일 생긴다. **61년생** 길함도 흉함도 없는 무탈한 날. **73년생** 원하는 일은 시간 필요하다. **85년생** 능력에 벅찬 일은 일찌감치 포기하라.

50년생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라. **62년생** 작은 변화에 활력이 넘친다. **74년생** 자신이 있더라도 과욕은 독임을 명심. **86년생** 마음을 비우면 길한 일이 생긴다.

51년생 언쟁 끼어들면 체면 구긴다. **63년생** 허세 부리지 말고 분수 지켜라. **75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면 큰 것 들어온다. **87년생** 연인의 응석에 마음이 무겁다.

52년생 동업은 가능한 한 피하라. **64년생** 정도 지키면 의외의 수익 생긴다. **76년생** 준비 없이 나서면 갈팡질팡. **88년생** 믿었던 사람의 엇박자에 속이 터진다.

53년생 측근의 변심에 허망하다. **65년생** 열 번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법. **7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바라던 바를 이룬다. **89년생** 공식 석상에서 튀는 행동 조심.

42년생 구설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 **54년생** 문서 일은 늦을수록 이익. **66년생** 부당한 외압에는 굳건히 맞서라. **78년생** 꼬였던 일은 풀릴 기미가 서서히 보인다.

43년생 무리하면 말썽 따른다. **55년생** 시각이 다른 사람과 큰일 도모하지 마라. **67년생** 걱정한 일은 최악은 모면한다. **79년생** 뜻밖의 이익 생겨 행복한 고민.

44년생 배우자 마음 잘 살펴라. **56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뜻 이룬다. **68년생** 앞날이 창창하니 돈보다 명예 선택해라. **80년생** 연인의 청혼 응답이 늦어져 초조.

45년생 욕심부리면 실망만 한다. **57년생** 남우세스럽더라도 약속은 지켜라. **69년생** 부끄러운 변명은 체면만 구긴다. **81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자신감 가져라.

46년생 돈 문제는 냉정함 잃지 마라. **58년생** 욕심낼 만한 일감이 생겨 활력 넘친다. **70년생** 준비가 안 된 꿈은 꾸지도 마라. **82년생** 귀를 닫으면 뒷북만 친다.

47년생 가족의 격려에 심신 안정. **59년생**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71년생** 정성 들이면 달콤한 열매 뒤따른다. **83년생** 시작한 일 마무리한 뒤 다른 일 도모하라.

‘쇼트트랙 왕국’ 자존심 살린 신구조화

팀워크로 뭉친 女 3000m 계주 5총사 金 되찾아

두 언니는 벤쿠버의 아쉬움을 씻어 눈물을, 동생 둘은 평창을 향한 기대에 미소를 보였다.

18일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대표팀의 1번과 3번 주자로 금메달을 합작한 박승희(22·화성시청)와 조해리(28·고양시청)는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4년 전 밴쿠버올림픽 이 종목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중국의 레이스를 방해했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실격의 아픔을 겪었던 박승희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오랜 한을 풀고 빼앗긴 금메달을 되찾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박승희는 "그때 같이 계주에 나섰던 김민정·이은별 등 동료들이 많이 떠오른다"며 "같이 금메달을 빼앗겼는데 지금의 기쁨도 함께하자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4년 전 함께 출전했던 맏언니 조해리(28·고양시청)는 "그동안 올림픽 운이 없었기 때문에 색깔과 상관없이 올림픽 메달이 너무 그리웠는데, 황금빛으로 보답 받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다시 울먹였다.

이들과 달리 '쇼트트랙 왕국'의 자존심을 되찾는데 앞장선 '10대 콤비' 심석희(17·세화여고)와 김아랑(19·전주제일고)은 2018년 안방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에서도 한국의 메달 레이스를 주도하겠다는 자신감으로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특히 막내 심석희는 "이번에 중국을 이겨서 후련한 것도 있지만, 언니들과 같이 이겼다는 게 제게는 더 기쁜 일"이라면서 의젓한 동료애를 드러냈다.

심석희는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2012~2013시즌부터 1500m 최강자로 군림하면서 올림픽 금메달 '0순위'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서는 중국의 저우양에게 금메달을 내줘야 했고, 다시 스케이트 끈을 조여 맨 끝에 기쁨의 웃음을 되찾았다.

김아랑은 올 시즌 월드컵 1500m와 1000m 세계랭킹 2위에 오르며 '최강' 심석희의 대항마로 급부상했다. 개인전에서 김아랑과 심석희가 펼쳐온 선의의 경쟁은 팀 전력을 끌어올렸고 결국 금빛 결실로 이어졌다.

대표팀의 든든한 지붕인 조해리와 이를 떠받치는 대들보 박승희가 중심을 잡고, 그 아래에서 심석희·김아랑·공상정(18·유봉여고) 등 신예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표팀은 완벽한 신구조화 속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18일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터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 우승한 뒤 플라워 세리머니 때 꽃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심석희, 박승희, 공상정, 김아랑, 조해리. /연합뉴스

이승훈 "아! 4초" 1만m 아쉬운 4위

이승훈이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만m에서 4위로 들어온 후 숨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스타 이승훈(26·한국체대)이 네덜란드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주종목에서도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승훈은 18일 러시아 소치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만m에서 13분11초68의 기록으로 14명 중 4위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 5000m에서 12위에 그친 그는 4년 전 밴쿠버 대회 금메달을 획득했던 종목에서도 메달을 따지 못했다.

요릿 베르흐스마(네덜란드)가 12분44초45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가져갔고, 스벤 크라머르(네덜란드)가 12분49초02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베테랑 보프 데용(네덜란드)이 13분07초19로 마지막 메달마저 챙겼다. /유순호기자

국가별 메달 순위 <19일 오전1시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독일	8	3	4
2	노르웨이	7	4	7
3	네덜란드	6	6	8
4	러시아	5	8	6
5	미국	5	4	10
6	스위스	5	2	1
7	벨라루스	5	0	1
8	캐나다	4	8	4
9	폴란드	4	0	0
10	중국	3	2	1
15	**대한민국**	2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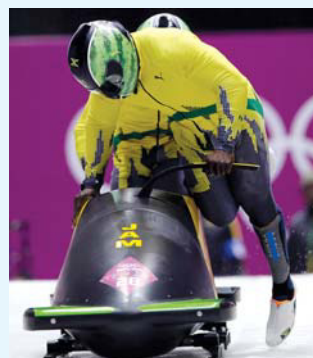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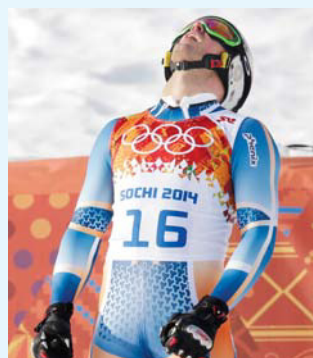
자메이카 봅슬레이팀 성적은 꼴찌 감동은 1등

소치 이모저모

○…12년 만에 재개된 자메이카 봅슬레이 대표팀의 '쿨러닝'은 꼴찌로 아쉽게 마무리됐다.

자메이카 대표팀은 17일 러시아 소치의 산키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봅슬레이 남자 2인승 3차 레이스에서 58초17을 기록했다. 1~3차 레이스 합계 기록은 2분55초40으로 30개 출전국 중 최하위에 그쳤다. 그러나 끝까지 당당한 모습으로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1988년 캘거리 대회 때 육상선수들로 봅슬레이 팀을 꾸려 동계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사연은 6년 뒤 영화 '쿨러닝'으로 제작됐고, 자메이카 대표팀은 세계적인 도전의 상징이 됐다.

이들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지만 한국 기업의 도움으로 비행기 삯과 장비 살 돈을 겨우 구했다. 또 힘겹게 소치에 도착했지만 썰매가 행방불명이 돼 큰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들은 2018 평창 대회에도 출전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12년 만에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최하위로 대회를 끝낸 자메이카 봅슬레이 대표팀(왼쪽). 알레르기로 연일 부진한 모습을 보인 악셀 룬 스비날. /AP 연합뉴스

스키 영웅 알레르기 탓 경기 포기

○…노르웨이의 스키 영웅 악셀 룬 스비날이 부진을 거듭하다 알레르기를 이유로 남은 경기를 포기했다.

남자 알파인스키 선수인 스비날은 남은 레이스인 대회전과 회전 종목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포기 이유는 대기 중의 콘크리트로 말미암은 알레르기 때문이다. 스비날은 "비슷한 유형의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선수들이 많다"며 "미세먼지 같은 콘크리트가 공기 중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약을 처방받았고 나아지긴 했지만 힘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소치에서 눈이 따끔거리고 콧물이 나는 증세 등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슷한 유형의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스비날은 밝혔다.

스비날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세 개를 목에 걸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활강 4위, 슈퍼복합 8위, 슈퍼대회전 7위에 그치며 부진했다. /유순호기자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이 열리기 하루 전인 18일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마지막 실전훈련을 하고 있다. 전날까지 김연아와 같은 훈련 조에 속해있었지만 끝내 동시 훈련을 피했던 러시아의 율리아 리프니츠카야는 18일 조별 훈련에는 등장했다. 리프니츠카야는 김연아가 아닌 같은 조에 속한 아사다 마오와 훈련했다. /뉴시스·연합뉴스

"김연아, 실수 없다면 금메달"

피겨 스타들 압도적 우승 점쳐…내일 대결 돌입

"김연아의 올림픽 2연패를 막을 방법은 대형 실수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역대 피겨스케이팅 스타들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를 앞두고 김연아의 압도적인 우승을 점쳤다.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크리스티 야마구치(43·미국)는 18일 미국 CBS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김연아(24)와 러시아의 신성 율리아 리프니츠카야의 양강 구도가 된 이번 대회의 변수는 '실수'라고 전망했다.

야마구치는 "김연아가 실수해야 리프니츠카야가 이길 수 있다. 올림픽 챔피언을 물리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고 김연아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있다고 밝혔다.

알베르빌 남자 은메달리스트 폴 와일은 "김연아가 압도할 수 있지만 리프니츠카야가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김연아가 경험과 노련미에서 앞선다고 평가했다. CBS스포츠는 "김연아는 올림픽 금메달 경험이 있고, 유명 인사로 지내왔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8년 나가노 은메달리스트 미셸 콴(미국)은 폭스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김연아가 모든 점프를 잘 마무리한다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리프니츠카야가 김연아와 함께 훈련하지 않는 것도 비교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수와 홈 텃세가 김연아의 금메달을 막을 유일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김연아의 완벽한 연기는 뒤에 경기할 경쟁자들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선 선수가 좋은 점수를 받으면 뒤에 나서는 선수는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닌 이상 흔들릴 수밖에 없다. 4년 전 올림픽 프리스케이팅에서 김연아는 150.65점을 찍고 종합 228.56점의 역대 최고 기록으로 아사다 마오를 멀찍이 앞서갔고, 이후 경기에 나선 아사다는 조급해진 마음에 두 차례 점프 실수를 저지르면서 완전히 무너졌다.

20일 새벽 쇼트프로그램에서 17번째 선수로 나서는 김연아의 경기는 25번째의 리프니츠카야와 30번째의 아사다에게 적지 않은 압박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짜릿한 첫 도전…평창 꿈 '가속도'

男봅슬레이 원윤종·서영우 2인승 18위 역대 최고 기록
女컬링 3승6패 '성공적 데뷔'

메달보다 소중한 희망을 품은 선수들이 속속 소치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데뷔전을 치러 10개 팀 중 8위로 모든 경기를 마쳤다. 세계 랭킹 10위인 한국 대표팀은 17일 세계 랭킹 7위 미국을 11-2로 대파했지만 18일 열린 세계 최강 캐나다에는 4-9로 패했다.

4강 진출을 노렸던 한국은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일본·러시아·미국 등 상위 랭킹 팀들을 꺾는 등 최종 성적 3승6패로 첫 올림픽을 끝냈다. 한국은 짧은 역사와 좁은 저변에도 2012년 캐나다 레스브리지에서 열린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4강 기적을 일궈내는 등 만만치 않은 실력으로 강호들과 경쟁해왔다.

봅슬레이 남자 2인승에 출전한 원윤종·서영우(23·이상 경기연맹)는 18일 산키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마지막 네 번째 레이스에서 합계 3분49초27을 기록했다.

컬링 여자 대표팀이 18일 캐나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패했지만 3승6패의 성적으로 첫 올림픽을 마무리했다. /뉴시스

최종 18위를 기록한 대표팀은 한국 봅슬레이가 올림픽 무대를 처음 밟은 2010년 밴쿠버 대회 때 남자 4인승에서 거둔 성적 19위보다 한 계단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틀 전에는 윤성빈(20·한국체대)이 남자 스켈레톤에서 한국 썰매 종목을 통틀어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 순위인 16위를 차지하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유순호기자

봅슬레이 남자 2인승에 출전한 원윤종(앞)과 서영우가 18일 역대 올림픽 최고 기록인 최종 합계 18위로 경기를 마치며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소치 하이라이트
sochi.ru 2014 · 19일 한국 주요 경기(한국시간)

종목	세부 종목	경기 시각	한국 선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24시	김연아·박소연·김해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0m	22시 30분	김보름
알파인스키	남자 대회전	16시	정동현·박제윤·경성현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14시 42분	신봉식·김상겸
봅슬레이	여자 2인승	20일 1시 15분	김선옥·신미화

볼티모어 입단 윤석민 3년 최대 140억원 계약

윤석민(28·사진)이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공식 일원이 됐다.

볼티모어는 18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윤석민과 3년 계약을 했다"며 "윤석민은 볼티모어 역사상 첫 한국인 선수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민은 볼티모어와 3년간 575만 달러(약 61억원), 보너스 포함 최대 1325만 달러(약 140억5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볼티모어의 까다로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지만 이를 문제 없이 통과해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에 입성했다.

윤석민은 새로운 등번호 18번을 달고 메이저리그를 누빈다. KIA 타이거즈에서 21번을 달았던 그는 주전 외야수 닉 마카키스가 같은 등번호를 달고 있어 결국 21번과 가장 가까운 18번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민은 류현진(27·LA 다저스)에 이어 한국 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두 번째 투수가 됐다. 지역 언론 볼티모어선은 18일 5선발을 노리는 투수 7명을 언급하며 윤석민을 네 번째로 소개했고, 5선발 진입 확률은 '10대 1'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윤석민은 19일 오전 2시 볼티모어 스프링캠프가 차려진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에서 열리는 입단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프로농구 전적 (18일)

팀	1Q	2Q	3Q	4Q	연장	합계
인삼공사	20	24	15	12	10	**81**
KT	19	7	23	22	6	**77**

프로배구 전적 (18일)

팀	세트	세트	팀
인삼공사	3	1	현대건설
삼성화재	3	2	한국전력

AIG손해보험 60주년 | AIG상품관리 제13-DM241호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4-0147호(2014년 01월 20일)

Daum AIG

실속있는 보험료로

노년에 꼭 필요한 **암**보장을!

AIG 부모님**암**보험 (4K002)

목돈드는 암 진단·수술·사망까지 보장!

선택계약

암 사망 2천만원
가입 후 91일 이후부터 보장
암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단,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은 제외

암 수술비II 1백만원
가입후 91일부터 보장. 기타 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제자리암 외 20%)

기본계약

암 진단비II 5백만원
가입후 91일부터 보장하며 최초 1회한 지급
기타 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기본계약 (1인당, 단위:원)			선택계약			
암 진단비II			암 사망		암 수술비II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0세	5,000	6,180	3,270	2,000	1,080	1,230
60세	10,240	7,540	10,380	4,250	1,860	1,380
70세	18,060	8,820	25,250	9,680	3,320	1,980

- 가입연령 : 30~75세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험료는 상해1급 기준이며,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상이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 **3년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 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청약절차 없이 최대 77세까지 재가입 할 수 있으며 재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지금 당신의 보험료를 확인해 보세요

1644-9896

합리적인 보험료로

중년에 꼭 필요한 **3대 큰병** 보장을!

무배당 Super **큰병**이기는보험 1304 (L2102)

걱정되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보장!

선택계약

암 진단비 2천만원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하며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기타 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뇌졸중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기본계약

골절진단 · 수술 의료비용, 화상진단 의료비용 1천 5백만원 한도
상해로 약관에 정한 골절진단 · 수술, 화상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기본계약			선택계약						
골절진단·수술, 화상진단 의료비용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89세	13,230		30세	1,440	4,340	600	360	500	180
			40세	4,060	9,760	1,760	880	1,020	360
			50세	9,800	11,220	4,460	3,100	1,760	720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 환급금	환급률
1년	240,840	1,616	0.7%
3년	722,520	29,244	4.0%
5년	1,204,200	-	0%

*예시기준: 상기 플랜 가입시, 최초계약, 5년만기, 전기월납, 순수보장형, 40세 남자 기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 가입연령 : 15~65세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험료는 성별 · 연령별로 상이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음**
- **5년만기 자동갱신 상품으로 연령증가와 요율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골절진단 · 수술 의료비용, 화상진단 의료비용은 최대 90세까지(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최대 80세까지) 보장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중대한 암 · 뇌졸중 · 급성심근경색증에 더 큰 보장을 드리는 플랜도 상담받으세요

1577-6429

QR코드를 찍으면 내 보험료가 보인다!

• 청약철회 :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불이행시 가입 후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보장개시일 :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 또는 신용카드·계좌 정보고지 후부터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상품구성은 가입하시는 플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보장내용은 증권 및 청약서를 참조 • 기보험 해지 후 신규 가입시, 가입 제한,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상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가입시, 상품설명서와 약관 혹은 홈페이지 참조 www.aig.co.kr

(H_SC_Metro_140206)

더 좋은 내일